

님의 숲길, 굽이쳐 길이 되다

내포문화숲길 홍성권역 (76km. 8개코스)



내포문화숲길

홍성신문



청운대학교

님의 숲길, 굽이쳐 길이 되다

내포문화숲길 홍성권역 (76km, 8개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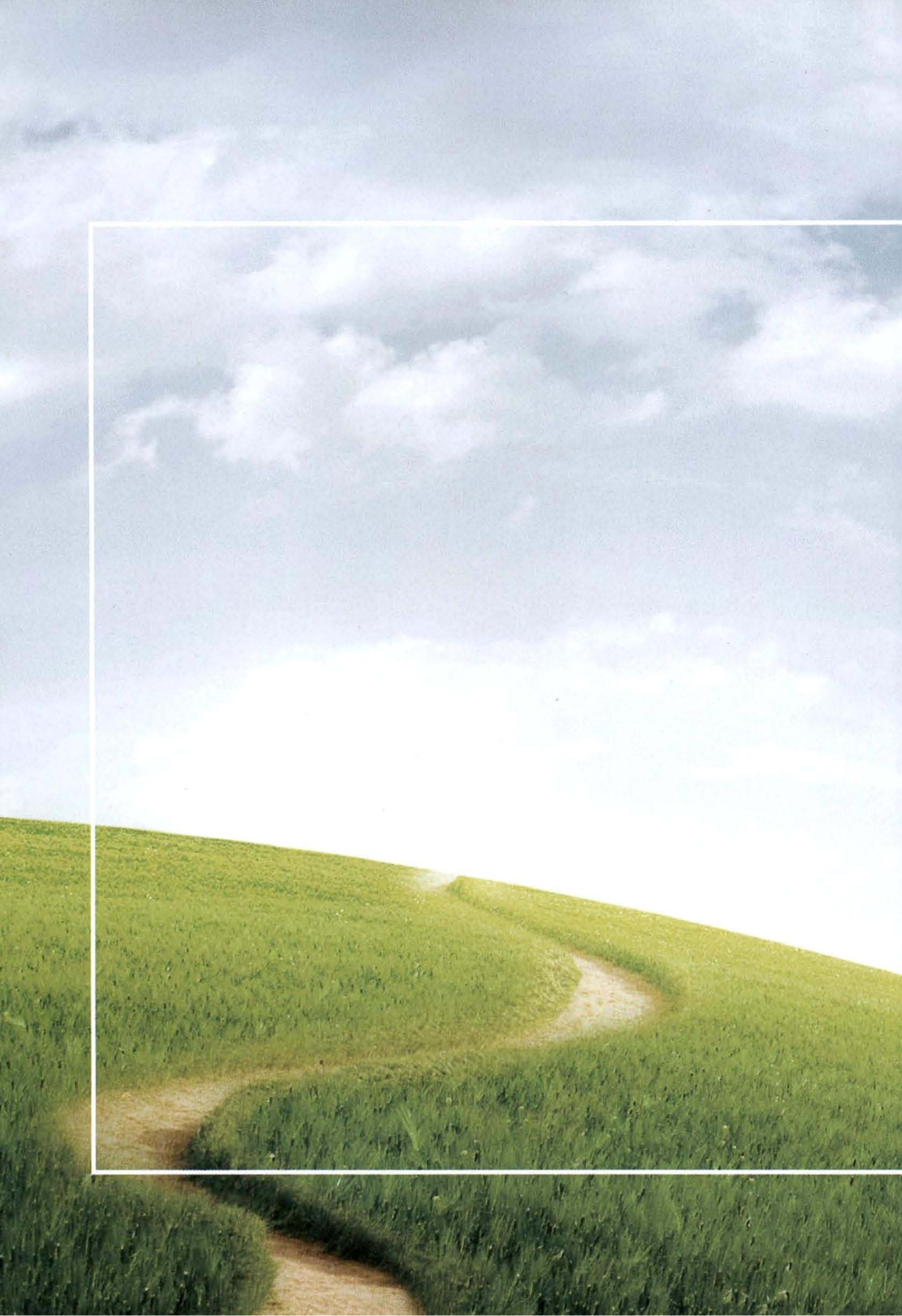


내포문화숲길

홍성신문



청운대학교



발 | 간 | 사

2010년 가야산 국유림의 길 10km를 시범구간으로 조성해 출발한
내포문화숲길이 2021년 국가숲길로 지정되는 성과를 일궈 냈습니다.
2016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이은 쾌거입니다.

홍성신문과 청운대학교,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는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내포문화숲길 홍성권역(76km, 8개코스)을
따라 흐르며 살아 숨 쉬는 사람, 문화, 마을 등의 이야기를 발굴해 숲
길의 활성화와 내포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발굴된 콘텐츠는 신문기사, 동영상 제작, 홍보책자 등을 통해
배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 참여 연구진 |

홍 성 신 문	민웅기	전 무
(사)내포문화숲길	하영진	홍성센터장
청 운 대 학 교	김봉덕	교 수
홍 성 문 화 원	조남민	국 장

이 책은 2022년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코스 TIP

하영진 홍성센터장 / (사)내포문화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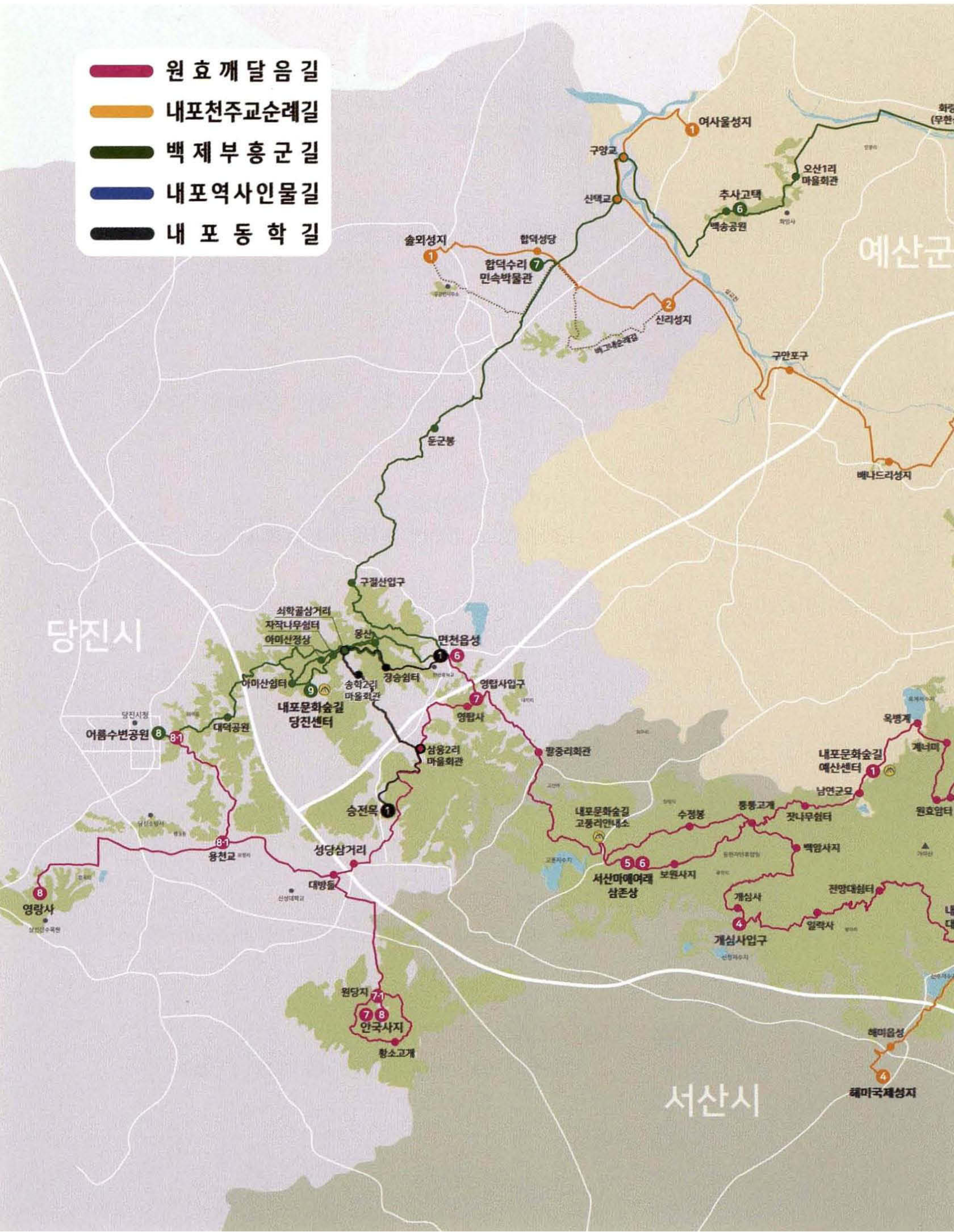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홍성문화원)

| 목 차 |

09. 1. 내포역사인물길 1코스
(충의사 ~ 이응노생가기념관, 11.1km)
23. 2. 내포역사인물길 2코스
(이응노생가기념관 ~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9.7km)
39. 3. 내포역사인물길 3코스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 오서산 상담마을, 15.5km)
55. 4. 내포역사인물길 4코스
(결성동헌 ~ 김좌진장군생가지, 13.0km)
73. 5.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
(성삼문선생 유허지 ~ 최영장군 사당, 2.3km)
89. 6. 내포천주교순례길 5코스
(홍주성역사관 ~ 홍주순교성지, 2.3km)
105. 7. 백제부흥군길 1코스
(오서산 상담마을 ~ 대현1구 마을회관, 16.5km)
121. 8. 백제부흥군길 2코스
(대현1구 마을회관 ~ 광시한우테마공원, 13.9km)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 지역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옛길과 마을길, 숲길과 하천길을 연결한 충청남도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며 총거리는 약 320km입니다.





내포역사인물길 1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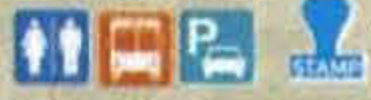
충의사 ~ 이응노생가기념관. 11.1km



609

인물02

F



이응노생가
기념관

용봉초등학교



용봉산 ▲

용봉산
자연휴양림

용봉사



외념이고개

수암산 ▲

충청남도청

40

둔리저수지

원효01

천주교04

시량초등학교

덕산온천
지구

S

충의사



내포문화숲길안내소



화장실 / 버스



식당 / 숙소



주차장 / 의료



시점 / 종점



노선 교차점



스탬프

천주교03

45

내포역사인물길 1코스 INFO

- 총 거 리 : 11.1KM(충의사 ~ 이응노생가기념관)
- 스탬프 위 치 : 충의사
- 난 이 도 : 중
용봉산을 오르는 산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전 준비 및 안전에 주의하고 특히 용봉산 내포 전망대 이후부터는 암석지대가 있어 내리막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내포역사인물길 1코스는

충의사부터 이응노생가기념관까지의 코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에서 출발하여 예산과 홍성의 경계인 뒤편이고개를 지나

용봉산에 오르면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용봉산은 내포전망대와 작은 금강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용바위, 병풍바위 등 용봉산의 수많은 기암괴석을 지나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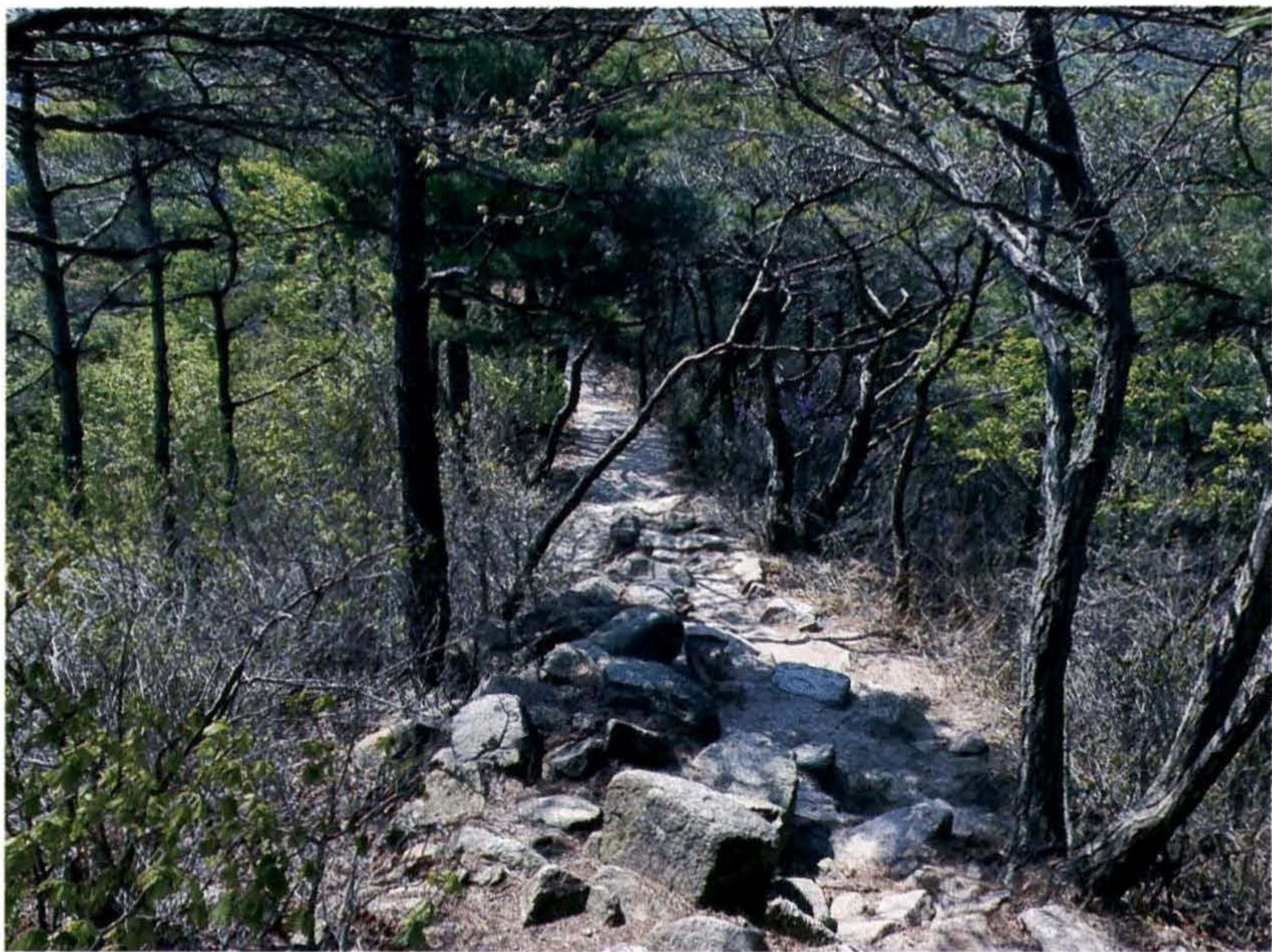
특히나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용봉사 마애불의 투박한 미소도 만나게 되며

이후 용봉산 아래 마을길을 따라가면

대한민국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 기념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포역사인물길 1코스

충의사 ~ 이응노생가기념관, 11.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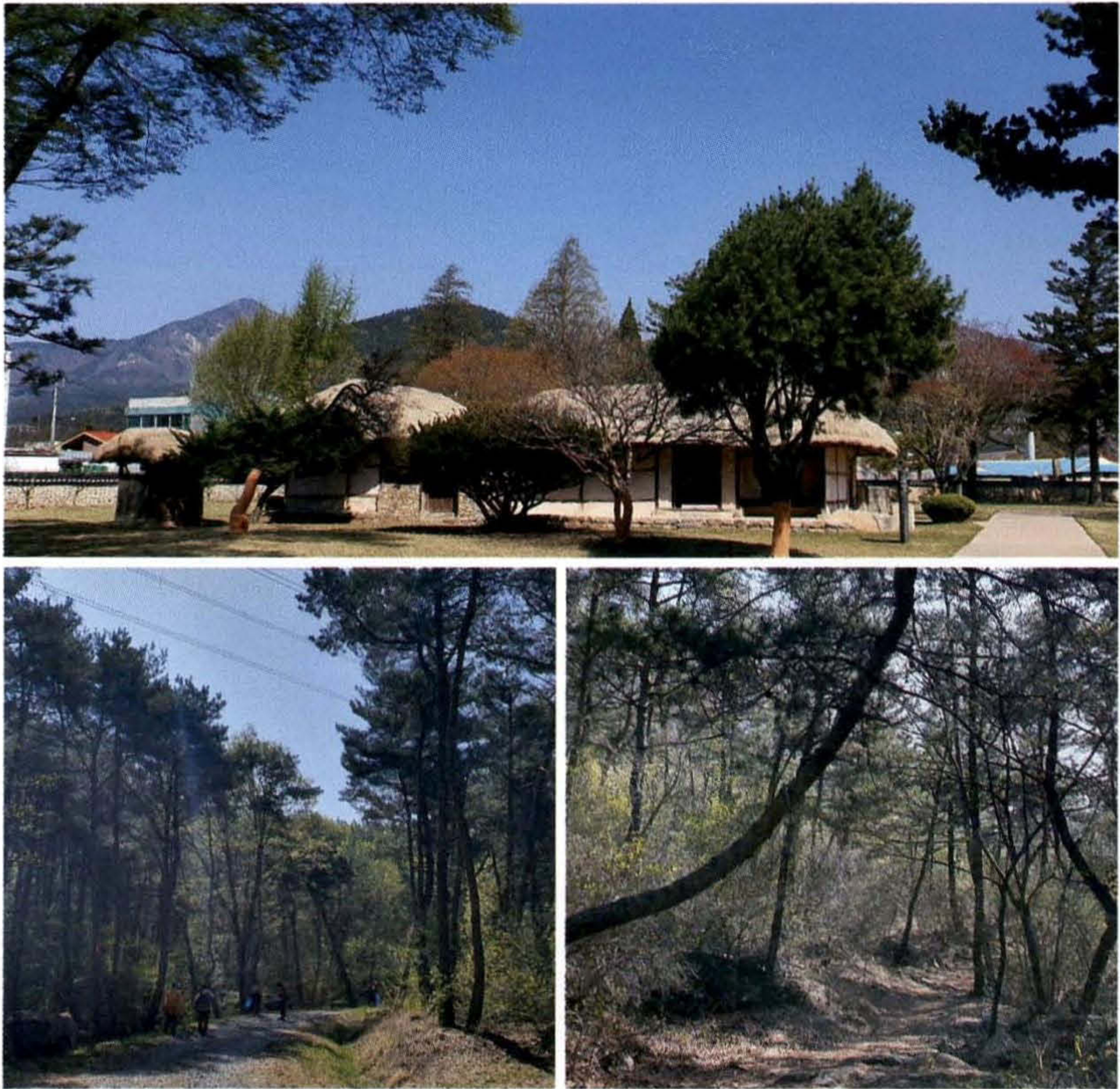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용봉산 자락의 향기

내포역사인물길 1코스의 출발지가 ‘충의사’로 정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매헌 윤봉길 의사(1908~1932)의 기개와 포부, 독립을 갈망하는 일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져오는 기념관과 사당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교육의 장이자 국가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곳이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이라는 비장한 글을 쓴 것은 윤봉길의 나이 25살(1930년)이었다. 이후 중국 홍콩의 ‘도시락 폭탄의거’를 결행하고 2년 뒤 일제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윤봉길 의사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한 3.1운동의 맥을 이어 나가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던 행동하는 독립운동가, 굳센 의지를 실천하는 애국주의자였다.

독립운동가들의 초상이 전시되어있는 충의사 건너편의 고즈넉한 윤봉길 생가는, 다소곳한 담장과 온화한 시골풍경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공간이었다.



생가와 조화롭게 이만저만하게 생긴 마을의 모습도 평화로운 정서가 한결 묻어났고, 용봉산 입구 둔리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시골길은 너무나 익숙한 시골동네의 정겹고 소박한 ‘촌스런 모습’ 그 자체였다.

조선시대까지 ‘팔봉산’이라고 불렸던 용봉산은 일제에 의해 홍성구역의 ‘용봉산’과 예산구역의 ‘수암산’으로 분리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되지 못하고 같은 산줄기이면서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예산과 홍성의 경계에 있는 지점의 인도를 따라 올라가면 용봉산의 능선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곳은 예산 수암산, 홍성 용봉산, 내포 신도시로 이어지는 삼거리로, 산책을 나온 많은 주민들이 휴식하는 곳인데도 편의시설이 없어 대부분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쉬웠다.

용봉산은 뾰족한 산이다. 정상 최고봉은 381m로 그리 높지 않으며, 능선에만 오르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편안한 산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들은 서로 연결되어 정기를 주고 받지만 용봉산은 홀로인 산 즉, 독산(獨山)이며 더구나 북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사가 재밌게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홍성과 예산의 경계를 지나는 지점에는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내포 일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정면으로 보이는 충남도청과 예산읍, 우측에 있는 홍성읍, 오서산, 그리고 맑은 날에는 그 이상 까지도 조망할 수도 있기에 많은 등산객들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내포문화숲길은 용봉산의 정상을 향하지 않고, 트레이드 마크인 병풍바위를 거쳐 구룡대로 이어진다. 하산길의 오른쪽에 있는 용봉사는 홍성에 있는 네 개의 보물 중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다. 보물 제355호인 신경리 마애여래입상과 보물 1262호인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밖에도 용봉산에는 최영장군의 전설이 전해지는 활터, 사자바위, 물개바위, 옆으로 자라는 소나무 등 기암괴석과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용봉산을 내려오면 용봉초로 향하는 하산마을 둘레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이 마을 입구에는 고려시대의 ‘석불’이 있었는데 2005년에 도난당한 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충남도에서 발간한 ‘도난 문화재 현황’에도 올라있는 이 석불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이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루빨리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느릿느릿 하산마을길 옆의 야생화를 감상하며 걷다보면 금세 용봉초 입구에 닿는다. 용봉이란 ‘용의 기세’와 ‘봉황의 야망’을 합한 말인데, 이 때문인지 여기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남달리 잘 뭉치고 아직까지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물이 많다고 한다.

쾌적하게 정비된 용봉초 앞의 맑은 하천 곁에는 분홍빛 벚꽃이 하늘거리고,



파릇하게 돋아나는 각종 이름 모를 나뭇잎들이 서로 경쟁하듯 녹색과 연두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급할 것 없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들바람을 느끼다 보니 발길은 어느새 홍북읍 중계리 동막마을에 다다른다.

소향리 예비군 훈련장 옆으로 난 잔잔하고 화사한 벚꽃길은 왠지 모르게 봄날의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벚꽃 그늘에 들었을 때는 이미 걸어온 15km의 힘든 기억이 신기하게도 봄 눈 녹듯 사라졌다.

저 멀리 고암 이응노 기념관이 시야에 들어오고,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투명한 연못에 비칠즈음, 생가 뒷편으로 이어진 금북정맥의 위용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다.



[충의사]

일제강점기 독립 투사인 윤봉길의사가 태어나 망명길에 오르기까지 농촌계몽과 애국정신을 고취한 곳으로, 윤의사의 의거와 애국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매년 4월 29일에는 윤의사의 애국충정을 기념하는 매한 문화제가 열리며 윤의사의 귀중한 유품은 기념관에 전시되어 보물 제 568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응노생가기념관]

대한민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 작품들이 전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시 홀, 북 카페, 다목적실 등 전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 공간과 추가로 지은 생가, 야외 전시장, 연발,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포역사인물길 2코스

이응노생가기념관 ~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9.7km



-  내포문화숲길안내소
-  화장실 / 버스
-  식당 / 숙소
-  주차장 / 의료
-  시점 / 종점
-  노선 교차점
-  스탬프

내포역사인물길 2코스 INFO

- 총 거 리 : 9.7KM(이응노생가기념관 ~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 스탬프 위 치 : 이응노생가기념관
- 난 이 도 : 상

백월산을 오르는 산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전 준비 및 안전에 주의하고 중간거점부터 일부 도로 구간이 있으니 차량 통행에 주의해 주세요.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내포역사인물길 2코스는

이응노생가기념관부터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까지의 코스입니다.

대한민국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 작품 등이 전시된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출발하여 홍성의 진산 백월산을 오르게 됩니다.

394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예로부터 홍성사람들이 신성시 했다 하는데 정상에 올라 홍성 시내를 내려다보면 그 느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월산을 내려와 마을 길을 거쳐 완만한 등산로의 남산을 만나게 되고 멋진 자태의 소나무 아래 남산삼림욕장을 거쳐서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포역사인물길 2코스

이응노생가기념관 ~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9.7km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월산자락이 품은 예술과 역사

‘화가의 꿈이 시작된 곳, 희망과 열정으로 꿈을 키우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 자리, 평화통일과 인류화해의 염원 그의 예술혼이 함께 하는 곳’. 홍북읍 중계리 이응노 생가터 안내문에 있는 단 세 문장의 글은 마음으로 와닿는다.

고암((顧庵) 이응노(李應魯, 1904~1989)는 홍성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19세 때 해강 김규진의 문하에 들어가 서화를 배웠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근대 미술교육을 받았고 해방 후 프랑스 파리에 활동한 세계적인 화가이며 ‘추상’ ‘군상’ 등의 작품으로 근현대 미술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타계 전 ‘나는 충남 홍성사람입니다.’라며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던 이응노가 홍성군민의 기억속으로 다시 환생한 것은 2011년, 생가지 일원에 기념관, 미술관, 야외전시장, 연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부터다. 지금은 더욱 관리가 잘 되어 지역주민의 문화 휴식터는 물론이거니와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빠짐없이 들르는 명소가 되었다.



이응노의 집을 뒤로하고 월산을 향해 걷는 길은 약간의 인내가 필요한 ‘각오의 길’이다. 홍천문화마을 입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지만 마을 뒤로 이어진 등산로는 오르막의 연속이다. 백월산 정상부근의 ‘깔딱계단’을 넘어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다. 땀깨나 흘린 보상은 동서남북으로 탁 트인 시원한 조망에서 찾을 수 있다.

남쪽으로는 웅장하게 우뚝 솟은 서해 명산 오서산이 자리하고, 서쪽으로는 구항 갈산 서부를 넘어 서해 천수만과 안면도까지 조망된다. 북쪽으로는 용



봉산과 내포신도시 일대가 시야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홍성읍내 전역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과연 홍주골의 진산(鎭山)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는 곳임이 피부로 느껴진다.

때로는 백월산, 일월산으로 불리기도 하나 보통은 ‘월산(394m)’이라고 한다. 홍성읍내 쪽에서는 살짝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용봉산(381m)보다 높다. 산의 정상부는 뜻밖에도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기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도 한다. 매년 새해 첫날에는 군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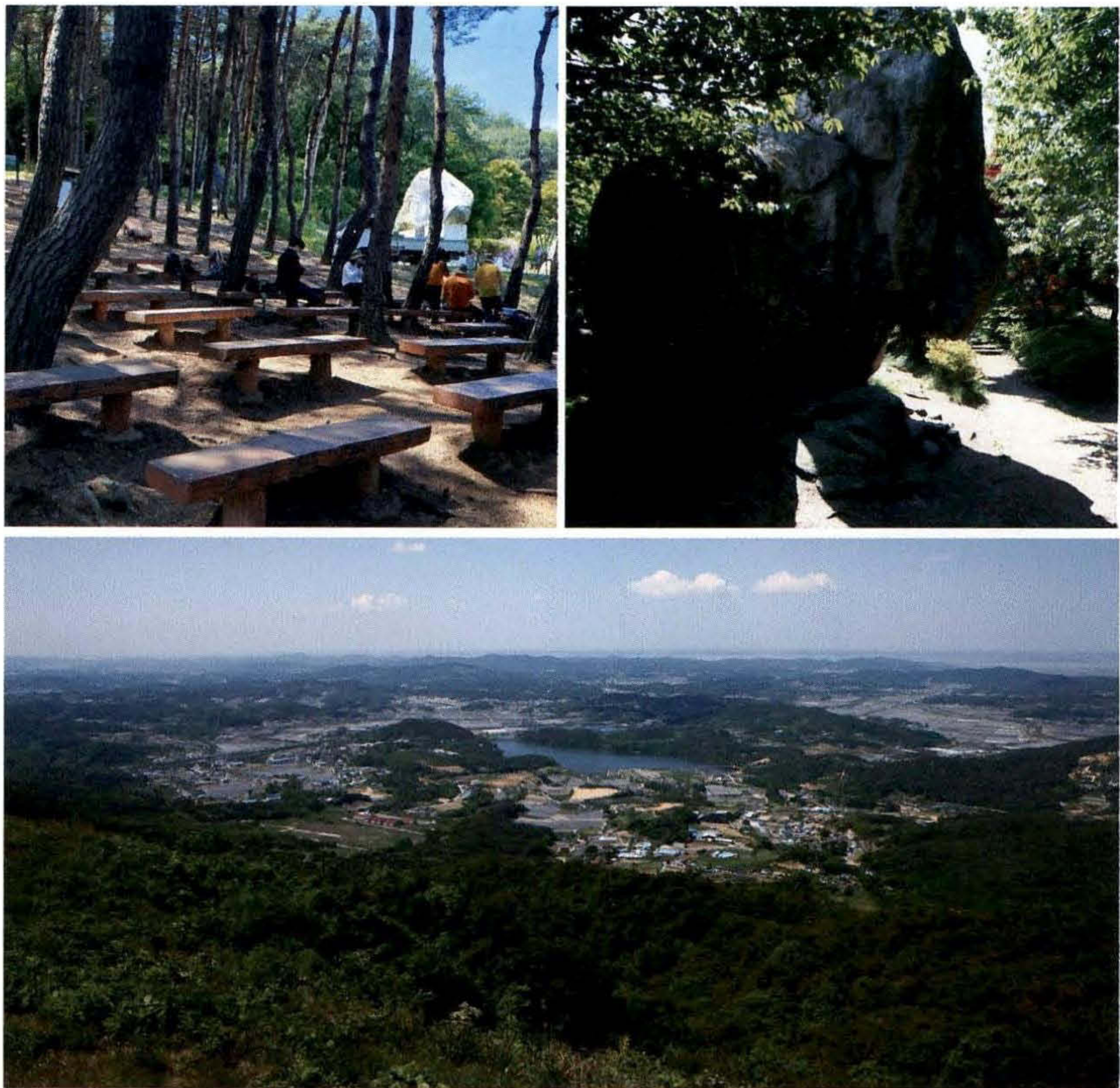
영신고천대제를 지내고, 홍성군민 체육대회가 벌어지면 성화를 채취하며, 바람이 센 날에는 패러글라이딩의 활공터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월산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영험한 신령이 깃들어 있는 기(氣)가 센 곳’이라는 것이다. 정상의 중심부에는 ‘홍가신 사당’이 있는데,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의 많은 무속인들이 찾아와 치성과 기도를 드리는 이름난 ‘명소’로 꼽히며, 선녀바위와 팔각정 주변은 해마다 전국의 등산객들이 몰려와 시산제를 지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홍주목사로 재임하던 시절 이몽학의 난이 발발하자, 신경행 최호 박명현 임득의와 함께 난을 평정하여 ‘청난공신(淸難功臣)’이 된 인물이다. 이들 청난 5공신(5장군이라고도 함)의 위패를 모신 곳이 바로 홍가신 사당이며, 지금까지도 홍주사람들의 오랜 정성과 숙원 기도가 4백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기에 그 영험함도 남다르다고 한다.

월산의 명물인 코끼리 바위와 코뿔소 바위, 얼굴 바위를 찾아보는 쏠쏠한 재미를 뒤로하고, 서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심호흡을 크게 한 후



하산길로 접어들면, 구항면사무소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게 된다. 이때 아무 생각없이 직진하면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속칭 ‘알바’를 경험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갈림길마다 ‘내포문화숲길’이라고 적힌 이정표가 붙어있다. 노랑과 빨강의 ‘시그널(표식, 표지기, 띠지라고도 함)’을 잘 찾는 것이 숲길을 걷는 요령인 셈이다.

가파른 하산길이 끝나면 구항 황곡리와 월산리를 잇는 살포쟁이 고개를 지나 하고개에 있는 ‘의병주둔비’에 다다른다. ‘홍주병오의병주둔유지비’라고



새겨진 이 비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06년, 홍주의병들이 홍주 성 공격을 앞두고 집결하여 주둔했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곳은 호서지방 의병이 뭉친 첫 주둔지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상당한 곳임에도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하고개에서 옥암리 마을을 지나 맞고개에 이르면 쉼만한 정자를 하나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가면 보개산으로 이어지는 '재너머 사례 긴 밭 가는 숲길'에 이르고, 내포문화숲길은 좌측의 길로 향해야 한다. 남산이 바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지만 막판에 등장하는 급경사의 난코스가 지친 몸을 툴툴이 주저앉히며 정상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홍성의 남산은 '적당히' 등산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최적의 곳이다. 봄



이 되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봄나물이 지천에 솟으며, 여름날의 나무 그늘과 가을날의 화려한 단풍으로 지역주민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휴식같은 친구'다.

아기자기 잘 만들어진 계단 길을 따라 한동안 내려가니 녹색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쾌적한 남산산림욕장이 나타나고, 만해 한용운의 동상과 총령사 그리고 목적지인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 다다른다.



[백월산]

홍성읍 월산리와 구항면 오봉리에 있는 산으로 조망이 매우 뛰어난 산입니다.

해발 394.3m로 등산로와 임도가 잘 되어 있으며 여러 방향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응노생가기념관]

대한민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 작품들이 전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시 홀, 북 카페, 다목적실 등 전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 공간과 초가로 지은 생가, 야외 전시장, 연발,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포역사인물길 3코스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 오서산 상담마을. 15.5km



내포역사인물길 3코스 INFO

- 총 거 리 : 15.5KM(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 오서산상담마을)
- 스탬프 위 치 : 광천읍행정복지센터
- 난 이 도 : 상
도로 및 포장길이 50% 이상이므로 차량통행 및 안전에 주의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그늘이 부족한 도로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
분 섭취 및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
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
해보세요.



내포역사인물길 3코스는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부터 오서산상담마을까지의 코스입니다.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에서 출발하여 금북정맥 봉수지맥을 타고
가는 숲길과 옛날 큰 장이 들어섰던 광천읍 내를 향해서 가는
마을 길이 길게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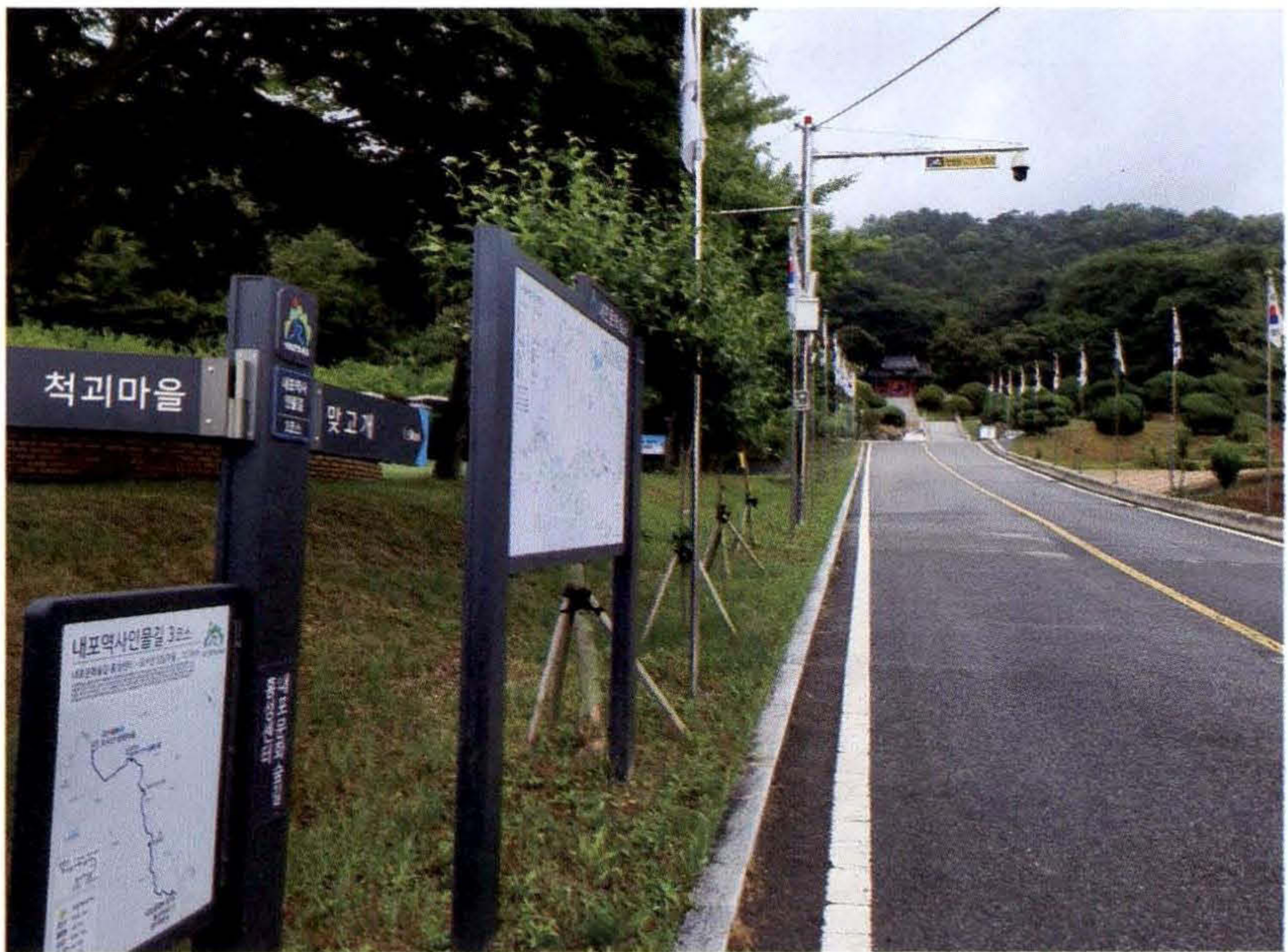
콘크리트 포장길 구간도 많지만, 주변의 농경지 풍경과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장항선 기차 지나가는 모습도 괜스레 정겨워집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었던

그림 같은 수목원도 지나게 되고

광천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읍내와

오서산 상담주차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3km 벚꽃길을 따라가면
오서산의 관문인 오서산 상담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포역사인물길 3코스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 ~ 오서산 상담마을, 15.5km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난향의 향기가 어린 산책길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는 홍성에서 광천으로 가는 남장리 언덕(마온 고개)에 있다. 남산자락에 위치한 이곳 일대는 ‘남산산림욕장’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홍성센터 바로 위편에는 충령사(忠靈祠)가 있는데, 홍성지역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유공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매년 현충일을 기해 추념식을 올리고 있다. 전시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충령관과 웅장한 충령탑, 국가유공자충훈탑, 월남참전유공탑, 만해 한용운 동상까지 세워져 있어 홍성이 충절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홍성읍 학계리와 구항면 마온리를 잇는 이 주변은 고조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고또개’ ‘꽃조개 고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마온아파트와 구항농공단지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숲길은 걷는 내내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곳은 정맥꾼들이 걸핏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곳이기도 하다.

금북정맥(錦北正脈)은 금강의 북쪽을 잇는 산줄기로, 태안 안흥진 바닷가



에서 안성 칠장산까지의 240여 km의 산길을 말하는데, 이런 정맥길을 다니는 산사람을 흔히 ‘정맥꾼’이라 부른다. 금북정맥의 홍성 구간은 홍북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부터 시작되어 월산, 남산을 지나 광천의 오서산 금자봉까지 꽤 긴 구간이 통과한다. 다른 구간은 등산로가 비교적 뚜렷하나 마온리를 지나고부터는 알쏭달쏭한 길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내포문화숲길과 겹치는 구간이 많아 비교적 정비도 잘 되어있고, GPS도 발달되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호젓한 숲길을 따라 학계리 마을로 내려오면 신성역이 눈에 들어온다. 과거 신성역은 장항선 비둘기호가 정차하면서 학계리 청광리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차역이었으나, 지금은 간이역으로 변해 간간이 시멘트만 실어 나르고있는 중이다. 장항선 철로가 단선인 탓에 교행을 위해 머물기도



하고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10여 분간 멈추기도 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다.

내포문화숲길은 신성역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어진다. 철로를 가로지르는 길이 50m짜리 와계교에 올라서면 시원하게 쪽 뺀 철로를 감상할 수 있다. 이후 구항면 신곡리로 이어지는 길은 다소 지루하지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산책길이다. 왼편의 흥동 세천마을을 지날 때는 왠지 모르게 아늑한 느낌이 든다. 느긋하게 한참을 걷다 보면 척괴마을을 1.7km 앞둔 지점에서



갈림길이 나타난다.

이때 왼편으로 진행하면 금북정맥의 길이고, 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열녀묘소를 하나 만나게 된다. ‘열녀는 평양기생으로 황규하의 애인이었다...’로 시작하는 비문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조선 숙종때 평양감사 황흠(黃欽)의 아들 황규하(1678~1718)도령과 기생 난향(‘만향’이라고도 함)이 사랑에 빠졌는데 부친이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자, 도령은 과거급제 후에 찾아 오겠다 말을 남긴 채 그녀를 떠났다. 그 후 난향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후임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우물에 몸을 던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자 도령을 찾아 헤매다 홍주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황규하는 이미 세상을 떠난지라 그의 무덤가에서 시묘살이를 하다가 생을 마쳤다. 후세 사람들이 난향의 지조를 기억하며 비석을 세우고 황씨 종중에서 벌초와 제를 지낸다.’

비문에 적힌 빼곡한 글을 읽고 나니 이곳에 묻혀있는 난향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홍동면 원천리(중원과 세천을 합친 이름)에는 이렇듯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황흙의 묘는 세천마을에, 난향의 묘는 중원마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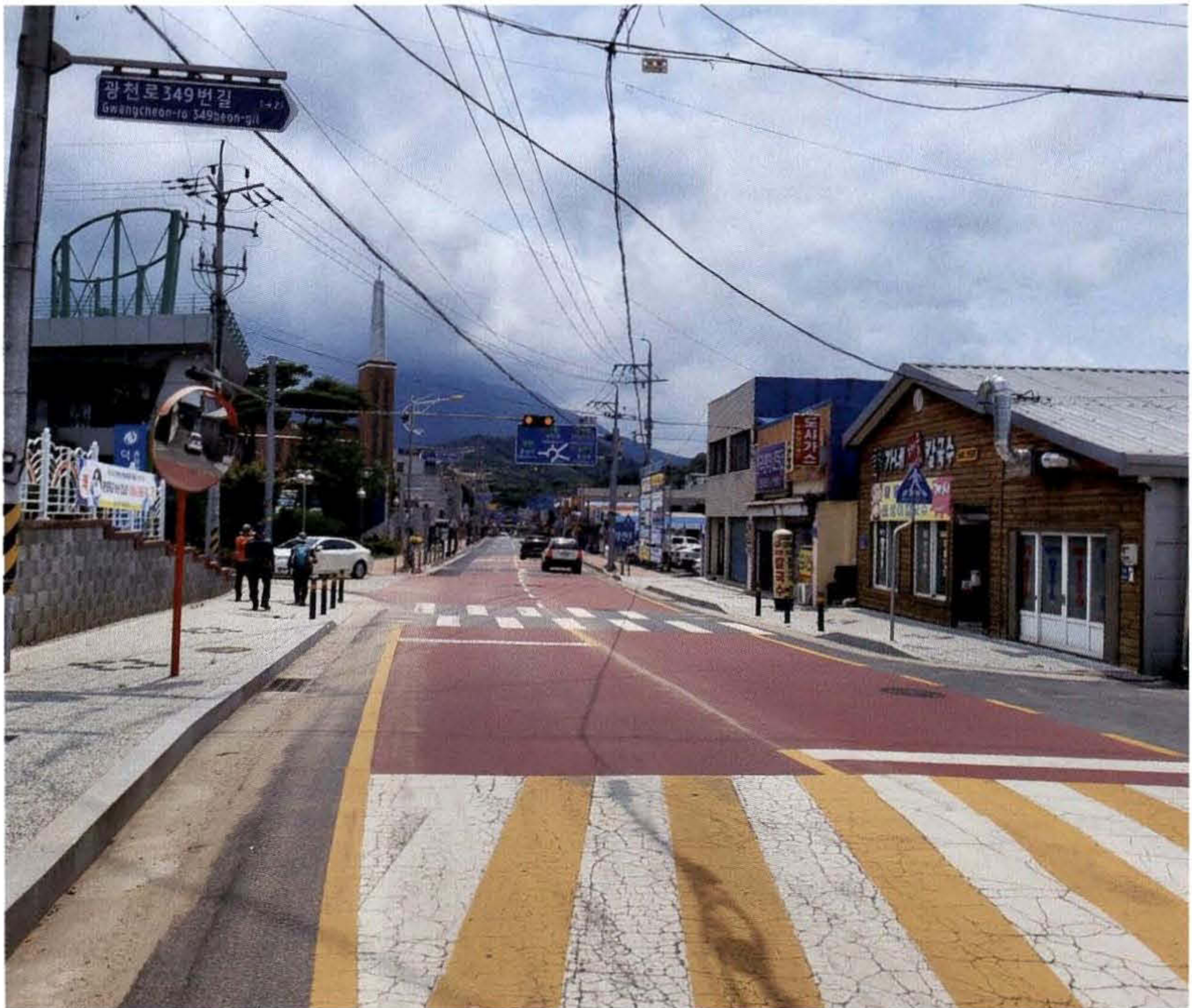
춘향전과 달리 비극으로 끝난 이 이야기를 뒤로하고 다시 갈림길로 되돌아와야 내포문화숲길로 이어진다. 어쩌면 난향도 많이 걸었을 이 길은 곧바로 척괴마을과 닿아있다. 옛날 이 마을에 키가 한 자 밖에 자라지 않는 괴이한 나무가 있어 ‘척괴(尺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광천까지는 전형적인 논길이 펼쳐진다. 땡볕에도 곳곳하게 자라



는 파릇한 벼의 놀라운 생명력을 관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매현리에 이른다. 이곳은 '하누리'라는 농촌체험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마을의 언덕에는 홍성 12경 중의 하나인 '그림 같은 수목원(구, 그림이 있는 정원)'이 새 주인을 맞아 영업을 재개했는데, 어떤 일인지 지역주민들의 발걸음은 뜸하다. 정원 바로 뒤편에는 광천농공단지가 들어서 있고, 장



고개(장현)에 있는 ‘한국 K-POP 고등학교(구, 광천고등학교)’를 지나면 광천읍내가 나타난다.

광천초에 편입된 덕명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는 커다란 오서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광천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와 오거리를 거쳐 광천 ‘쪽다리’에 이르면, 영혼을 울리는 소리꾼 ‘장사익’의 고향 삼봉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 하천을 예전에는 ‘보통’이라고 불렀는데, 어른들은 쪽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보통 냇가에서 먹을 감곤 했다. 죽전저수지가 넘쳐서



광천읍내가 물바다가 됐던 90년대 이후론 쪽다리가 없어지고 지금은 튼튼하고 안전한 새 다리가 놓여졌다.

광천 라이온스 클럽에서 잘 가꾼 벚꽃나무 그늘은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오서산 입구까지 이어지는데, 이곳은 광천읍민들이 애용하는 건강 산책길이기도 하다.



[상담마을]

서해안의 동대산이라 불리는 오서산의 첫 번째 마을로 봄에는 길게 펼쳐진 벚꽃길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오서산 정상의 억새 군락지가 유명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마을입니다. 상담마을 부녀회 분들이 운영하는 억새풀 식당에서 맛깔나는 마을 음식도 먹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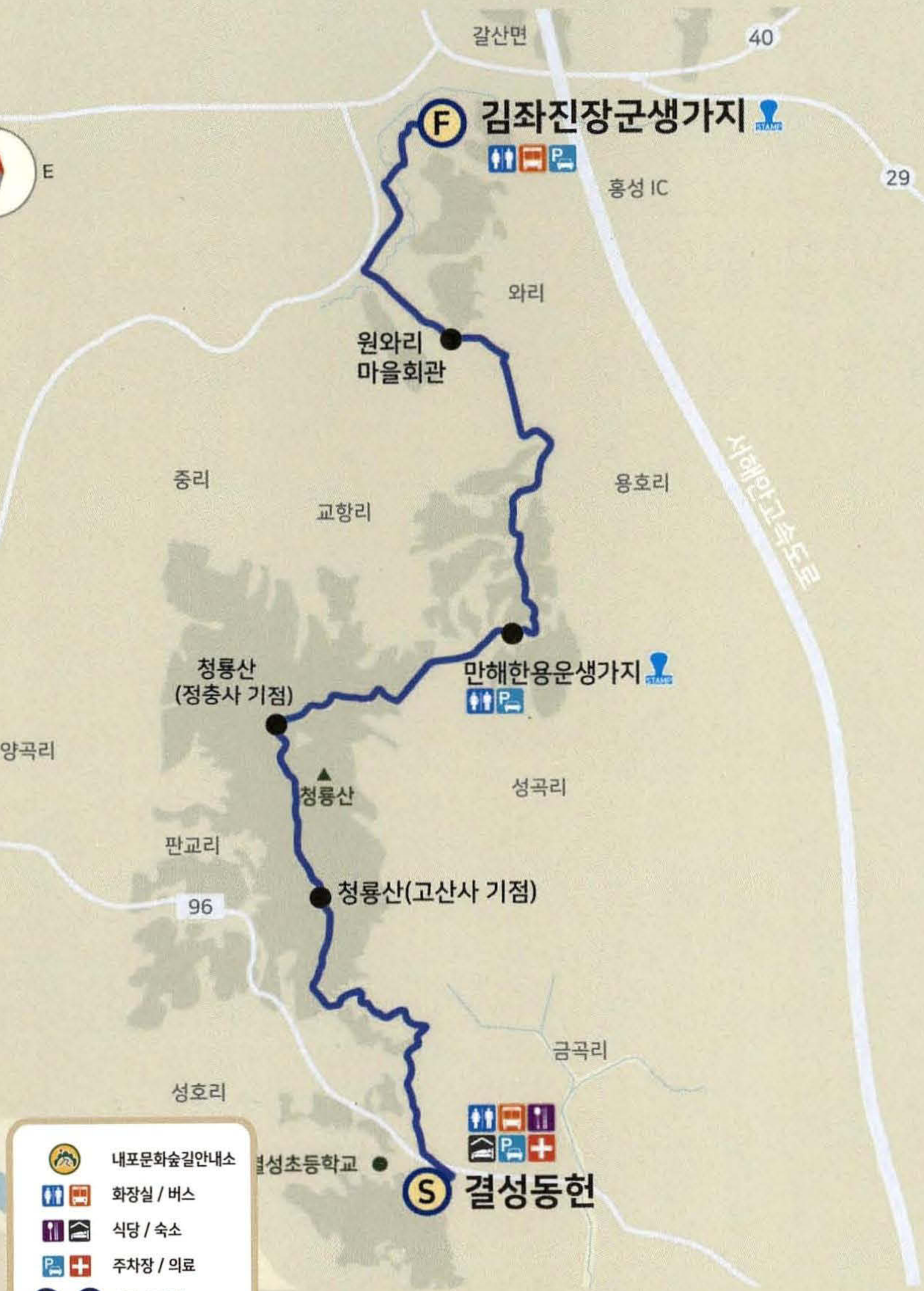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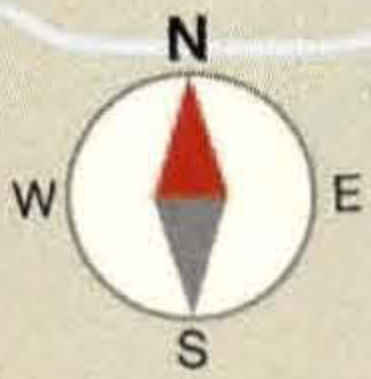


[그림같은수목원]

자연의 순수함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은 최선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친 자연적인 문화휴식공간입니다. 3만 평 정도의 대지 위에 목본류 460여 종, 초본류 870여 종을 갖추어 총 1,330여 종을 보유하게 되어 2005년에 문을 열게 된 수목원입니다.

내포역사인물길 4코스

결성동헌 ~ 김좌진장군생가지, 13.0km



	내포문화숲길안내소
	화장실 / 버스
	식당 / 숙소
	주차장 / 의료
	시점 / 종점
	노선 교차점
	스탬프

내포역사인물길 4코스 INFO

- 총 거 리 : 13.0KM(결성동헌 ~ 김좌진장군생가지)
- 스탬프 위치 : 만해 한용운생가, 김좌진장군생가
- 난 이 도 : 상

청룡산을 오르는 산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전 준비 및 안전에 주의하고, 중간거점을 지나 2차선 도로 및 포장도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 및 안전에 주의해주세요.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내포역사인물길 4코스는

내포문화숲길 홍성센터부터 오서산상담마을까지의 코스입니다.

결성동헌부터 김좌진장군생가지까지의 코스입니다.

홍성은 역사인물의 고장답게 수많은 역사인물이 태어난 지역입니다.

결성동헌에서 출발해 조금 걷다가 청룡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리 높지 않은 나지막한 산이지만 서해바다가 조망되는

멋진 풍광과 편안한 능선길 덕분에 청룡산만의

멋진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청룡산을 내려오면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와

만해 문학관을 지나가게 되고

짧은 숲길과 길게 이어진 마을 길과 하천을 따라 걷다 보면

김좌진 장군 생가와 기념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포역사인물길 4코스

결성동헌 ~ 김좌진장군생가지, 13.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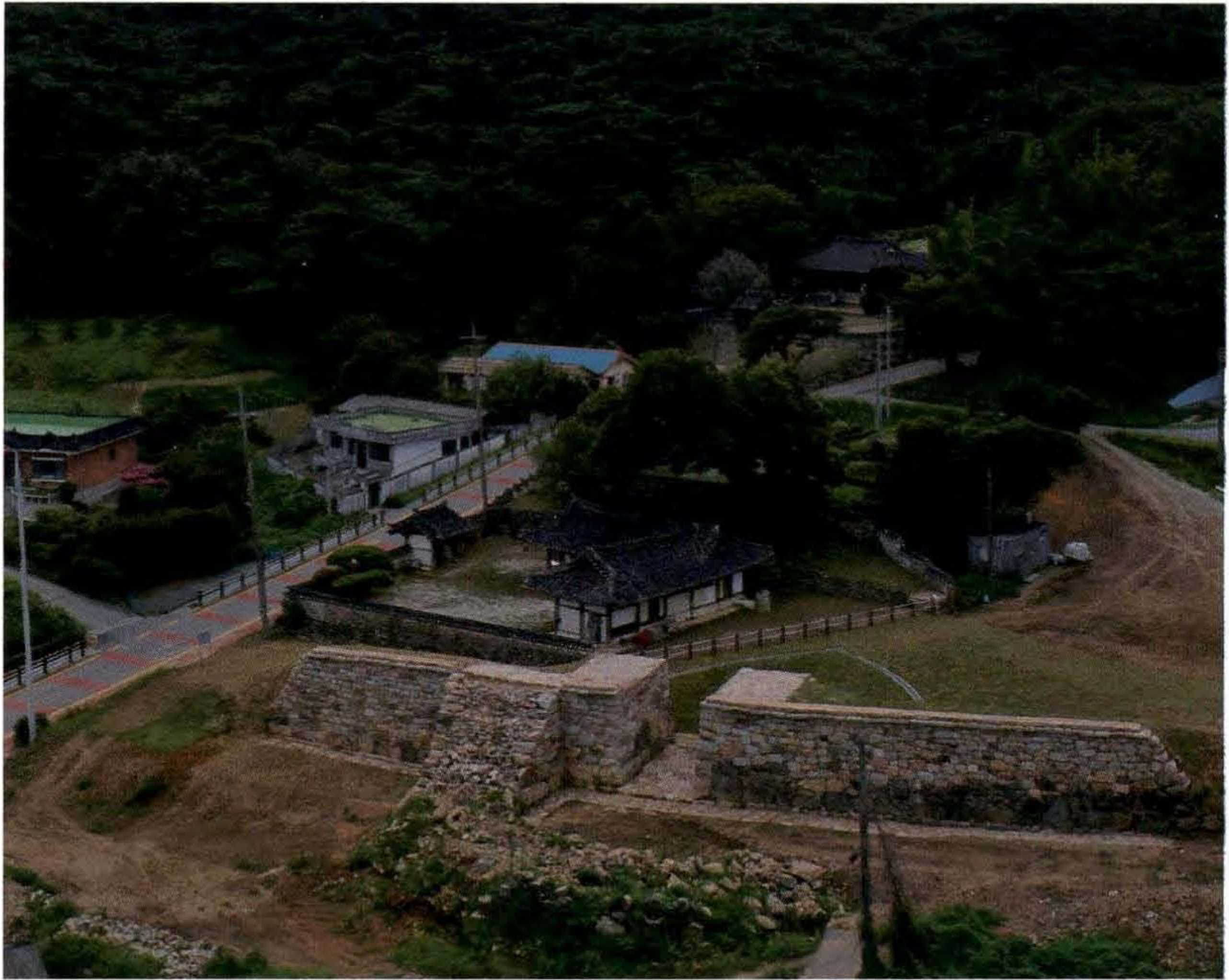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독립운동과 나라사랑을 생각하는 숲길

결성은 유서 깊은 곳이다. 천년 홍주(洪州)의 이름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사라진 1914년, 홍주가 홍성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의병의 강한 저항이 있던 홍주지역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에 따라 홍주목의 ‘홍(洪)’과 결성현의 ‘성(城)’을 합하여 지금의 홍성(洪城)이 되었다.

옛 결성현은 동헌과 향교를 갖추고 인근 읍면을 관할하던 매우 큰 고을이었다. 동헌(東軒)은 결성읍성의 관리들이 업무를 보던 건물이며 바로 옆에는 아담한 책실(冊室)을 갖추고 있다. 동헌의 바로 밑에는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형장청(刑將廳)만 현재 남아있으나 결성읍성 내에는 17개의 관아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동헌을 품고 있는 석당산(石堂山)은 100여 미터 남짓한 야산인데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잘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서해안 일대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망대가 있고 주변으로는 홍성위인테마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봄이면 벚꽃이 절경이고 가을이면 입구의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천천히 둘러본다면 일제강점기 석당산의 소나



무에서 송진을 채취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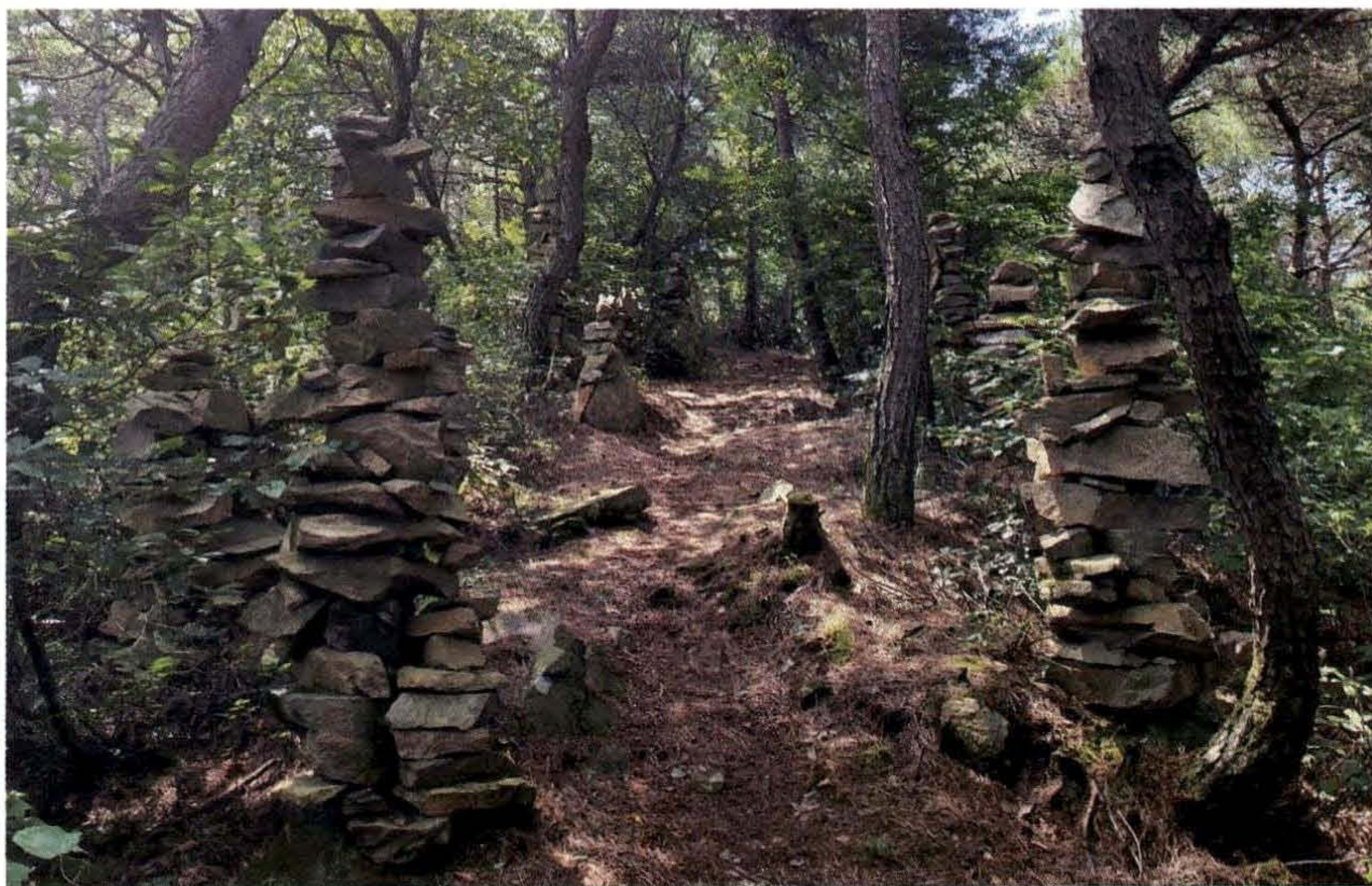
결성동헌을 내려와 야트막한 언덕을 하나 오르면 저 멀리 결성향교가 나타나는데, 한눈에 봐도 기막힌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뒤쪽으로는 청룡산, 남쪽으로는 서해바다, 그리고 저 멀리 오서산까지 시야에 들어오며 왠지 평화로움마저 느껴진다.

결성향교는 지방교육기관으로 1010년에 처음 세워져 여러번 고쳐 지어진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제기고 등을 갖추고 있고 공자를 비롯한 선현 27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현재는 이곳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이 진행되어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향교를 지나 교촌마을에 이르면 암반석에서 분출하는 특이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예전 용이 알을 낳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유래와 함께 ‘마을보물 제1호’라고 새긴 비가 서있다. 이곳을 지나면 곧바로 청룡산(靑龍山, 236m)초입에 닿고 살짝 가파른 계단을 적당히 올라야 능선을 만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완만한 숲길이 이어진다.

청룡산은 산줄기가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와룡천의 용담에서 청룡이 풍경을



구경하는 듯 머물러 있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능선길을 잠시 걷다가 우측 고산사 이정표로 잠시 내려서면 보물 제399호인 천년고찰 고산사 대웅전을 둘러볼 수도 있다.

조용하고 산책하기 좋은 길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서해바다가 한눈에 보이



는 시원한 풍경과 함께 잘 정비된 휴식터가 나온다. 이 길을 지나면 아기자기하게 세워진 돌탑 20여개가 시선을 사로잡고 곧바로 망대봉에 이른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임득의 장군의 묘소와 사당이 있다.

임득의(林得義, 1558~1612)장군은 이몽학의 난(1596년)때 집안사람과 의병 800여명을 모아 홍주성에서 홍가신목사, 박명현, 최호, 신경행 장군 등과 함께 반란군을 진압하여 청난 5공신에 올랐다. 묘소 주변에는 충절이 느껴지는 낙락장송과 위패를 모신 정충사(靖忠祠)가 있으며 입구에는 신도비가 서 있다.



내포문화숲길을 이어가려면 다시 청룡산에 올라 망대봉에서 직진하여야 한다. 한동안 비탈길을 내려가다보면 결성면 성곡리 박철마을로 입구로 이어지는 지방도를 만나는데, 이 길에서 약 1km 남짓을 더 가야 만해 한용운 생가지가 나온다.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선생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며 불교시인이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작성하였고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펼치다 서울 심우장에서 입적하였다. 선생이 태어난 결성 생가지는 기념관과 생가, 사당, 민족시비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인근의 김좌진 장군 생가와 함께 '홍성 12경'의 하나로 지정되었



다. 현재 생가지 주변을 확장하는 역사공원 조성공사가 한창이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조만간 거듭날 전망이다.

만해 생가지 위쪽의 숲길은 사색하기에 좋은 곳이다. 길도 편하거니와 시비에 새겨진 다양한 시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리 길지 않은 숲길을 내려오면 곧바로 도로를 만나는데 이곳부터 김좌진 장군 생가지까지는 전부 도로로 이어진다. 김좌진 생가와 만해 생가는 6km 정도에 이르는데, 이 구간의 양 옆길에는 모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나라사랑의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다른 생각도 하나 들었는데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은 혹시 생전에 왕래하거나 서로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 아닐까, 비록 한용운 선생이 10년 먼



저 태어났고 서로 방식이 다른 독립운동을 했지만 동향인 만큼, 어쩌면 관심을 가졌을 법도 하겠다.’라는 의미 없는 역사적 상상을 하는 동안 발걸음은 어느새 원와리 마을회관과 노루목의 전설이 있는 와리교를 지나고 있었다. 이 마을의 끝에는 아주 특이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넘쳐서 차들은 바퀴에 물이 닿고 사람은 징검다리로 건너게 되어있는 재미난 곳이다.

백야 김좌진(金佐鎭, 1889~1930)장군의 생가에 들어서면 왠지 숙연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며 일본군을 벌벌 떨게하던 당대의 영웅이었으나 공산주의자의 흉탄에 순국하여 광복을 못 본채 생을 마감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리라. 기념관과 생가 그리고 뒤편의 백야공원과 사당을 거니는 동안, 홍성의 역사인물 김좌진 장군에 대한 고마움과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성동헌]

1400년 창건된 조선시대 관아건물이다. 결성 현감이 업무를 다루던 곳으로, 책과 문서를 보관하면서 현감의 자제가 거쳐하던 책실이 있습니다. 동헌은 고려 말에 결성면 금곡리 분우터에 있다가 1400년에 지금의 읍을 옮겼을 때 읍의 산성 정상에 있었고, 1665년 현재 위치에 재건한 이래 여러 차례 고쳐 지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생가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있는 일제강점기 시인·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의 생가터입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75호로 낮은 야산을 등진 양지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생가가 쓰러져 없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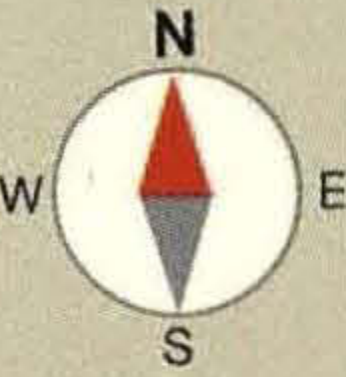
[김좌진장군 생가지]

1991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본채와 문간채, 사랑채를 복원하고 관리사와 전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는 백야 김좌진장군 추모제와 청산리전투 전승기념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

성삼문선생 유허지 ~ 최영장군 사당. 2.3km



달제산

최영장군사당



수리봉

F

S

성삼문선생유허지



한솔기마을회관

1.1km

최영장군사당

1.2km



내포문화숲길안내소



화장실 / 버스



식당 / 숙소



주차장 / 의료



시점 / 종점



노선 교차점



스탬프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 INFO

- 총 거 리 : 2.3KM(성삼문선생유허지 ~ 최영장군사당 ~ 성삼문선생유허지(순환))
- 스 텀 프 위 치 : 성삼문선생유허지, 최영장군사당
- 난 이 도 : 하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는

성삼문선생유허지부터 최영장군사당을 거쳐

다시 성삼문선생유허지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입니다.

고려 최영장군 사당과 조선시대 사육신 중

한 분인 성삼문선생유허지가 있는 흥북면 한솔기 마을까지

성삼문선생유허지에서 출발하여

마을 길을 따라서 최영장군사당에 도착하게 되며

이곳에서 사당 뒤로 이어진 닭제산 숲길을 따라서

다시 성삼문선생유허지에 도착하는 원점회귀 코스입니다.



내포역사인물길 5코스

성삼문선생 유허지 ~ 최영장군 사당, 2.3km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일편단심과 청렴결백의 역사길

이 코스는 길이가 짧고 난이도도 높지 않은 곳으로 흥북읍 노은리 한솔기 마을을 한바퀴 돌아 원점을 회귀하는 편안한 길이다.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통과하는데, 상리(上里)쪽은 예산과 금마로 가는 국도가 나오고 하리(下里)쪽으로 가면 장항선 철길을 지나 내포신도시로 향할 수 있다.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이런 마을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입구가 좁고, 막상 들어가면 길이 활처럼 휘어 너른 마을을 휘감으며, 수리봉 닭제산 매봉산에 둘러싸여 유정한 교쇄를 갖추고 삼교천과 만나는 이곳은 지리적으로 비범한 형상을 가진 곳이다.

바로 이 마을의 한복판에서 만고의 충신 최영 장군과 매죽헌 성삼문이 태어났다. 같은 마을 같은 집에서 100년-정확히는 102년-을 사이에 두고 두 분이 태어났다는 실로 놀라운 이야기도 전하긴 하나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

내포문화숲길은 마을의 한가운데에 시원하게 펼쳐진 너른 광장에서 시작된다. 이곳의 정식이름은 '성삼문선생 유허지'. 유허지(遺墟址)란 '지금은 없



거나 사라졌지만 어떤 역사적 흔적이 있었던 터'를 말하는데, 이를 기록한 증거물이나 기념물(주로 비석)이 주변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비각에 세워진 웅장한 '성삼문 선생 유허비'는 우암 송시열이 쓴 것으로 성삼문의 태생과 사육신의 절의, 유허비가 세워지게 된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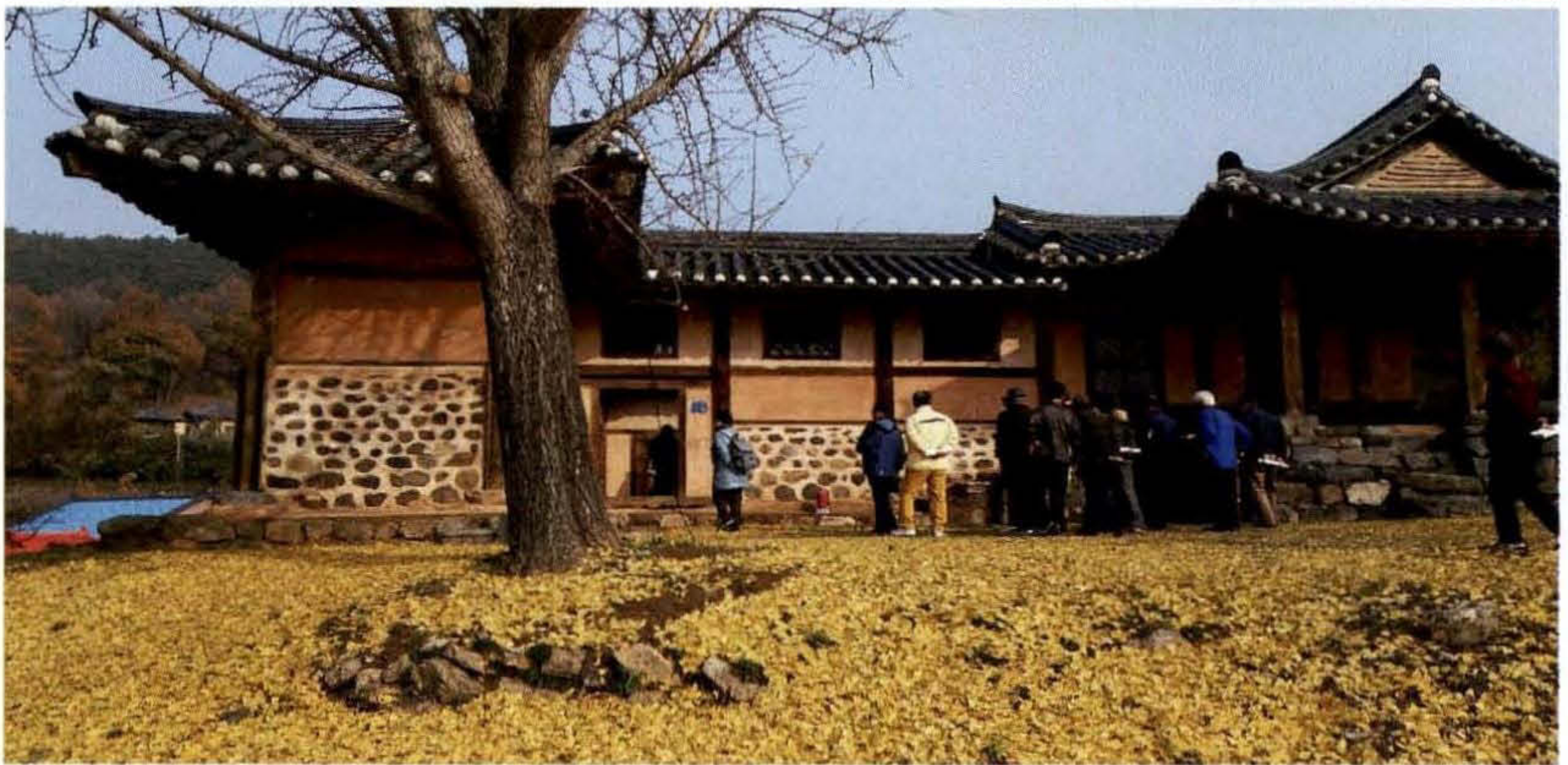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외가인 이곳 홍북에서 태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아 집현적 학사로 활동하며 한글창제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라는 물음이 세 번 있었다 하여 이름을 '삼문(三問)'이라고 지었다는 것과, 수양대군의 모진 고문속에서도 '나으리'라고 호칭하며 지조를 지킨 일화가 전한다.

그가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되



어 처참하게 처형당한 역사의 아픔 또한 익히 알려진 일이다. 이때 나이 38세, 성삼문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여러 곳으로 버려졌는데,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공원과 충남의 논산 등에서 성삼문의 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유허지의 바로 위쪽에는 마을이 평화롭게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노은단(魯恩壇)이 있다. 이 마을은 당초 ‘적동’이라 불리다가 후에 ‘노은(魯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노산군(魯山君, 강등된 단종을 말함)의 은혜(恩惠)’가 있



을 것이라는 송시열의 글에 기인한다. 이곳은 당초 사육신을 봉향하던 서원이 있었던 곳이나, 서원이 철폐되자 사육신의 위패를 땅에 묻고 단을 만들어 제를 지내고 있다.

노은단의 입구에는 사적기와 성삼문이 지은 단심가(丹心歌,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청청 하리라)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다.



노은단 밑으로는 몇 대째를 이어오는 오동나무가 있는데 성삼문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은 외가에서 이 나무에 북을 매달아 치며 축하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성삼문 오동나무’가 대량 증식에 성공, 여러 곳에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나무 옆으로 큼직하고 반듯한 사당 ‘충문사’가 있는데, 2006년에 건립된 것으로 성삼문의 표준영정이 모셔져 있다.

충문사를 지나 상리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한솔기 마을회관이 나타난다. 조금 더 지나 왼편으로 오래된 고택이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홍성 노은리 고택’이다. 성삼문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이곳의 예전 이름은 ‘엄찬 고택’이었다. ‘ㅁ’자의 가옥이지만 보기에 따라 ‘ㅂ’자로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



는 독특한 집이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나무가 운치를 더한다. 이 곳 주변으로 성삼문의 부인묘와 부친 성승 장군의 부부묘도 둘러볼 수 있다.

최영 장군 사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마을 축사는 그래도 정겹지만 기봉사 밑의 가파른 경사는 그렇지 않다. 겨우 올라 한숨을 돌리며 앞을 내다보니 시원한 풍광이 보답으로 펼쳐진다. 기봉사(奇峰祠)는 최영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지역에서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는 사당이다.

최영(崔瑩, 1316~1388)은 이곳 노은리에서 태어난 고려의 무신으로, 홍건적을 격파하고 왜구를 섬멸하였으며 평생을 청렴 강직하게 살아온 인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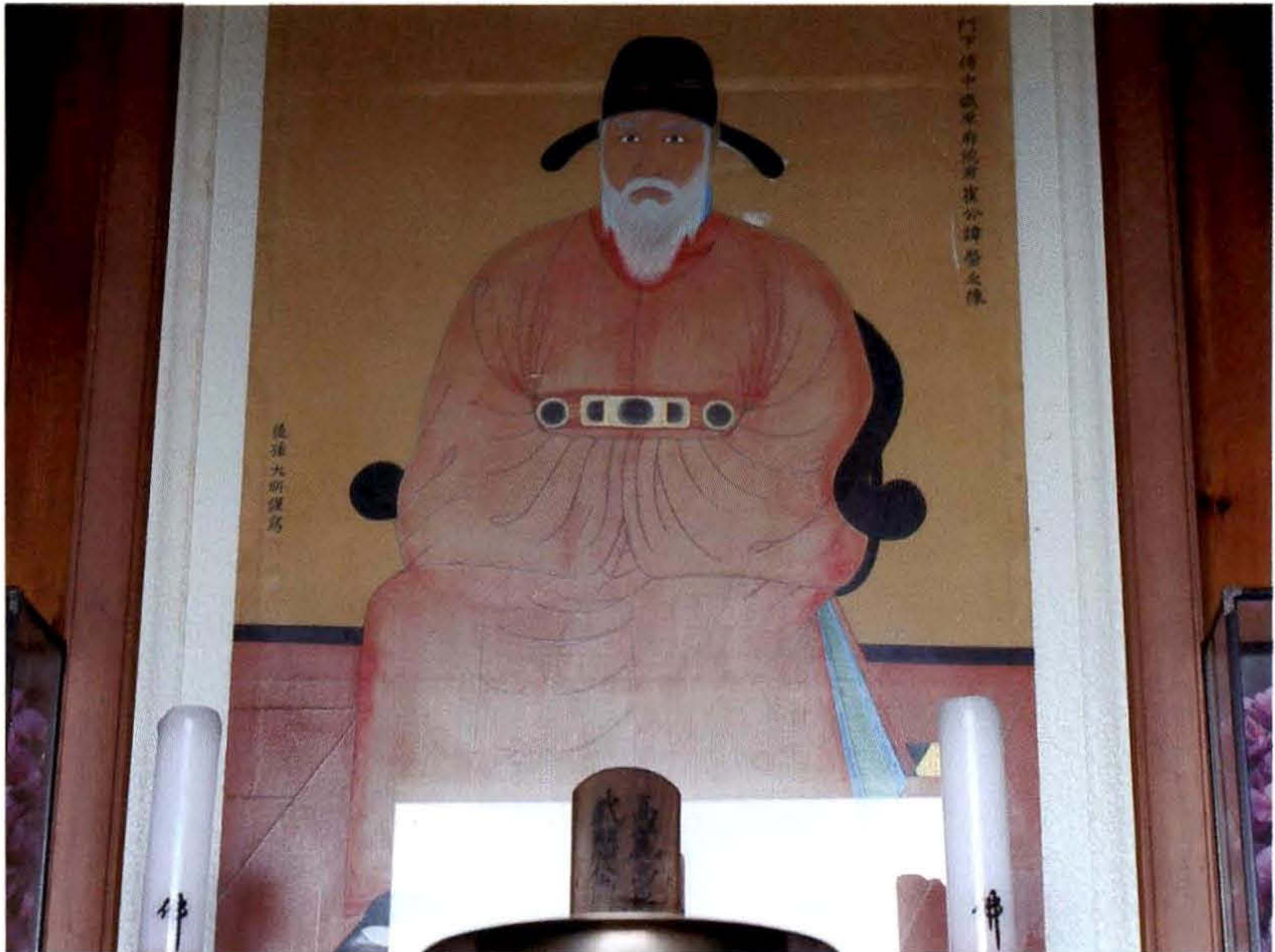
다. 이성계에게 비통하게 최후를 맞은 이후 이를 슬퍼하는 고려 백성의 가슴속에 남아 아직까지도 민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전국의 무속인들은 아직도 그를 최고의 신으로 모시며 ‘영신제’등의 다양한 민간 행사를 지내고 있기도 하다. 최영 장군의 흔적은 홍성읍의 말무덤, 용봉산 활터, 금마 철마산 등에도 남아있다.

장군의 향기를 뒤로하고 기념스탬프에 인증을 마친 후 바로 뒤편으로 오르면 닭제산(165m)이다. 이곳에서 우측으로 향하면 대인리의 매봉산으로 가고 왼편으로 가면 노은단 수리봉에 닿는다. 여름철 내포문화숲길을 방해하



는 3종 세트는 날파리, 모기, 거미줄이다. 이중 거미줄이 특히 지겨운데,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 휘두르면 효과가 좋다.

거미줄과의 한바탕 전쟁을 마치고 짧은 숲길을 돌아 다시 유허지로 향하는 하산 길은 심심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 마을로 닿는 조그만 대숲 옆에 이르니 갑자기 열은 바람이 인다.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어 뒤를 돌아보니 보이는 건 소나무와 낙엽뿐인데 어깨가 왠지 무거워진다, ‘독야청청 일편단심’ 성삼문의 기백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청렴결백한 최영 장군의 목소리가 살며시 어깨로 내려앉아 있었다.



[최영장군사당]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노은리에 있으며 최영장군이 1316년에 출생한 곳입니다. 사당은 삼봉산 중턱 가파른 언덕에 있는데 사당에는 '기봉사'라는 현판이 붙어 있으며, 홍성군에서는 1995년 제1회 최영 장군 영신제를 거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에도 대제를 올려 장군의 충의와 공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성삼문선생유허지]

충청남도 기념물 제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삼문유허지는 그의 외가가 있던 곳으로 성삼문이 출생한 집터이며 그의 사후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서원이 건립된 곳으로 유허 안에는 사당인 충문사가 있고 왼쪽 언덕에 노은단이 있습니다.

내포천주교순례길 5코스

홍주성역사관 ~ 홍주순교성지, 2.3km



● 홍성여자중학교

북문교

홍주초등학교

홍성군청

조양문

신천아파트

대교공원

홍주순교성지

홍성시장

평화의소녀상

홍주성역사공원

홍주성역사관



내포문화숲길안내소



화장실 / 버스



식당 / 숙소



주차장 / 의료



시점 /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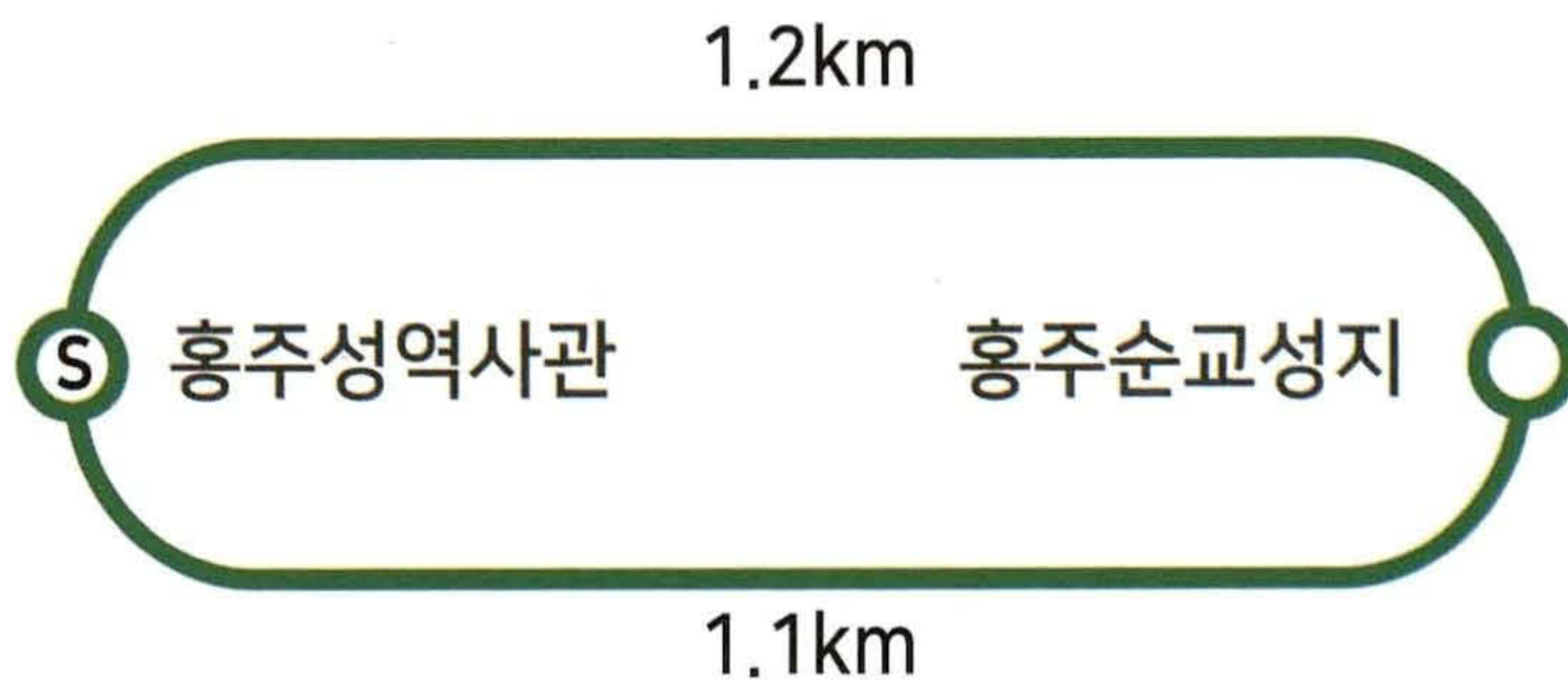
노선 교차점



스탬프

내포천주교순례길 5코스 INFO

- 총 거 리 : 2.3KM(홍주성역사관 ~ 홍주순교성지 ~
홍주성역사관(순환))
- 스탬프 위치 : 홍주순교성지
- 난 이 도 : 하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
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
해보세요.



내포천주교순례길 5코스는

홍주성역사관부터 홍주순교성지를 거쳐 다시
홍주성역사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홍주성역사관에서 출발하여 홍성군청, 북문교를 거쳐
홍주순교성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홍주순교성지와 더불어서 참수 순교터와
신앙 증거지인 옛 저자거리 등 아픈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천주교순례길 코스이며
홍주순교성지를 기점으로
조양문을 거쳐서 다시
홍주성역사관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입니다.



내포천주교순례길 5코스

홍주성역사관 ~ 홍주순교성지, 2.3km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순교자의 넋이 평화의 빛이 되리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미읍성 방문으로 내포지역의 천주교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때 홍성지역의 순교자 원시장 베드로, 방 프란치스코, 박취득 라우렌시오, 황일관 시몬 등 4명이 복자품(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다고 교회가 인정하는 지위)을 받았다.

홍성지역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 연구를 통해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임이 밝혀졌는데, 군에서도 순례지를 정비하고 코스를 마련하자 전국적인 순례명소로 떠올랐다.

내포문화숲길에서는 당진의 솔뫼성지, 해미읍성, 배나드리 성지, 신리성지 등과 함께 홍주순교성지를 제5코스로 선정하였다. 이 길은 비록 짧지만 홍성읍 중심부를 통과하며 여러 문화유산들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길이다.

출발지는 홍주성 역사관이다. 이곳은 홍주읍성의 한복판에 있으며 홍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야외 전망대 등으로 꾸며져 있다. 뒤편으로는 홍화문과 홍주읍성 비석군이 자리하고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밤낮없이 찾는 곳이다.

홍주읍성은 사적 제231호로 지정된 곳으로 조양문 홍주아문 산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헌인 안회당, 여하정과 함께 현재는 홍성군청, 의회가 들어서 있다. 또한 ‘이몽학의 난’ 중심지였고 구한말 의병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며 충절로 대표되는 ‘홍주정신’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홍주읍성 내에는 감옥터가 있는데 천주교 박해기간 동안 홍주의 신자 절반



정도가 순교한 곳이라고 전해진다. 내포지역은 일찍부터 천주교가 널리 전파되었으며 박해로 인한 순교자도 그만큼 많았다.

1801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 등 4대 박해가 시작되어 한불수교조약(1886년)으로 천주교가 인정될 때까지 약 100여년 동안 박해의 역사가 지속되었다. 특히 병인박해는 가장 오래 진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홍주지역은 기록상 212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기록에 전해지지 않는 무명의 순교자까지 더하면 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한다.



홍성지역에서는 감옥터 외에도 여러 순교터가 있는데, 고문과 피로 얼룩진 동헌(현 안회당 주변)과 진영(현 조양문 옆 KT건물), 조리돌림을 당하던 저잣거리(현 공영주차장, 구 경찰서), 참수터(북문교 주변), 생매장터(현 의사 총 앞 월계천 부근)등 총 6곳에 이른다.

홍주읍성 감옥터를 둘러보고 코스대로 걷다 보면 읍성 바깥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만난다. 겨울이면 따뜻한 머플러를 씌워주고 장마철이면 우산도 놓아주는 우리 홍성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향하면 홍주읍성의 동문인 조양문을 만난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작아 보이는데 걸으며 지나니 웅장함이 새롭게 느껴진다. 홍주성 복원계획에 따라 성내의 건물들이 조금씩 철거되는 주변 모습이 반갑기만 하다.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걸으면 금세 월계천이 나타나는데 이 하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환경을 개선한 곳으로, 걷는 내내 쾌적한 느낌이 든다.

신천아파트와 광경교를 지나면 곧바로 왼편의 홍주순교성지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이 주변에 홍성의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다. 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幢竿支柱)가 그것이다. 홍성천과 월계천이 만나는 이 주변에 예전 고려시대의 사찰 미륵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간지주의 크기로 보아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곳은 매우 외



진 곳에 있어서 정작 홍성읍 주민들도 그 존재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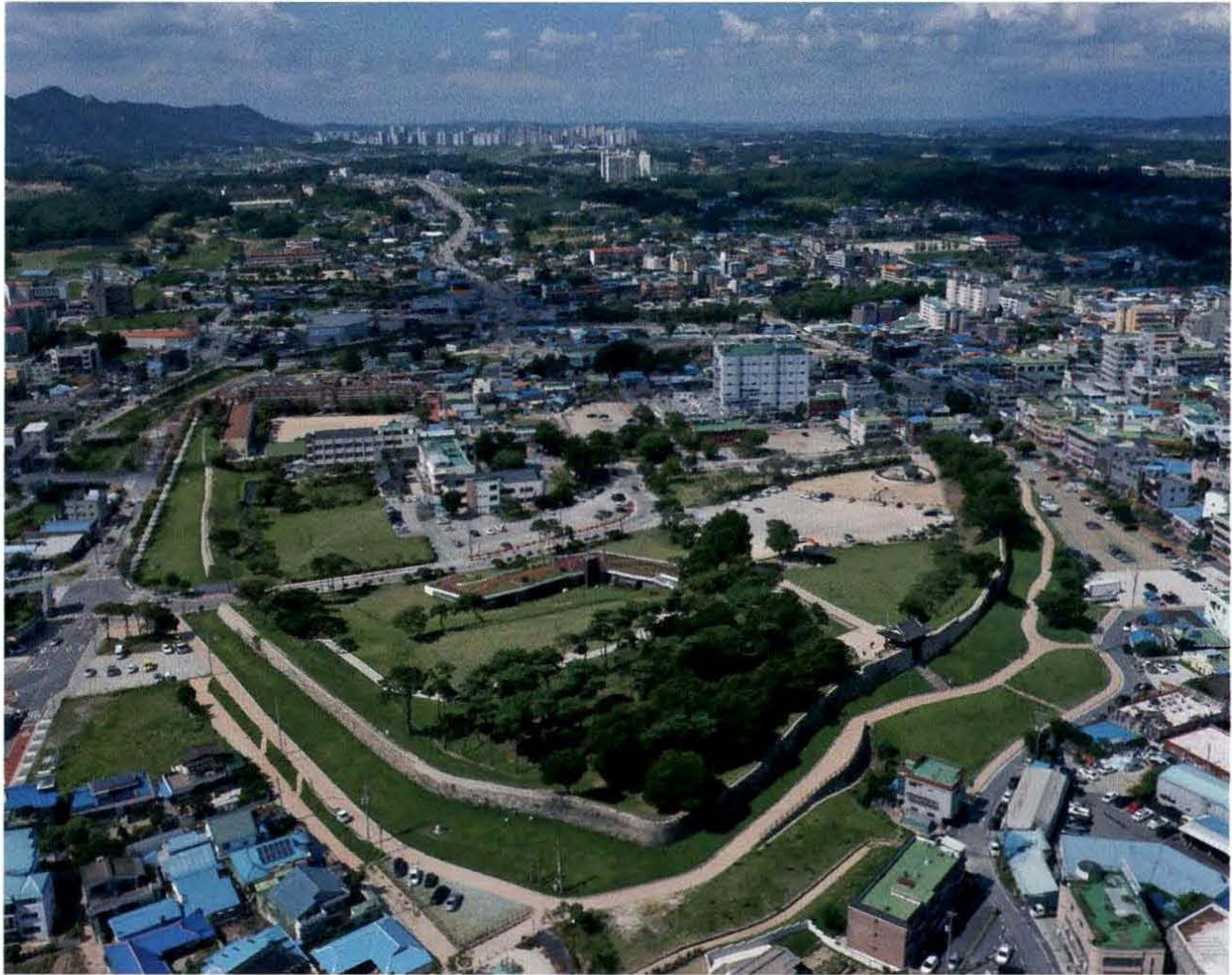
홍주순교성지는 홍주의사총 앞 도로 건너편에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다. 4차선 바로 옆이지만 크게 시끄럽지 않고 큰 나무가 있어 오히려 편안한 느낌도 든다. 천주교 신자로 보이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과 홍주순교성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현수막도 쉽게 볼 수 있다.



한동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순교자들의 종교적 신념에 애도를 표했다. 또한 천주교를 탄압해야 했던 종합적 이유와 시대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났다.

아무튼 홍주 천주교 순교성지 비문에 있는 ‘순교자의 숭고한 녀은 평화의 빛이 되리라’ 글에 깊이 공감했다.

이 코스는 원점회귀 코스지만 길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월계천을 상하로 끼고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심심하지 않을 만큼 읽을거리가 많다. 홍주



순교성지에서 회귀하는 하천 주변에는 예수의 고난을 표현한 14개의 조각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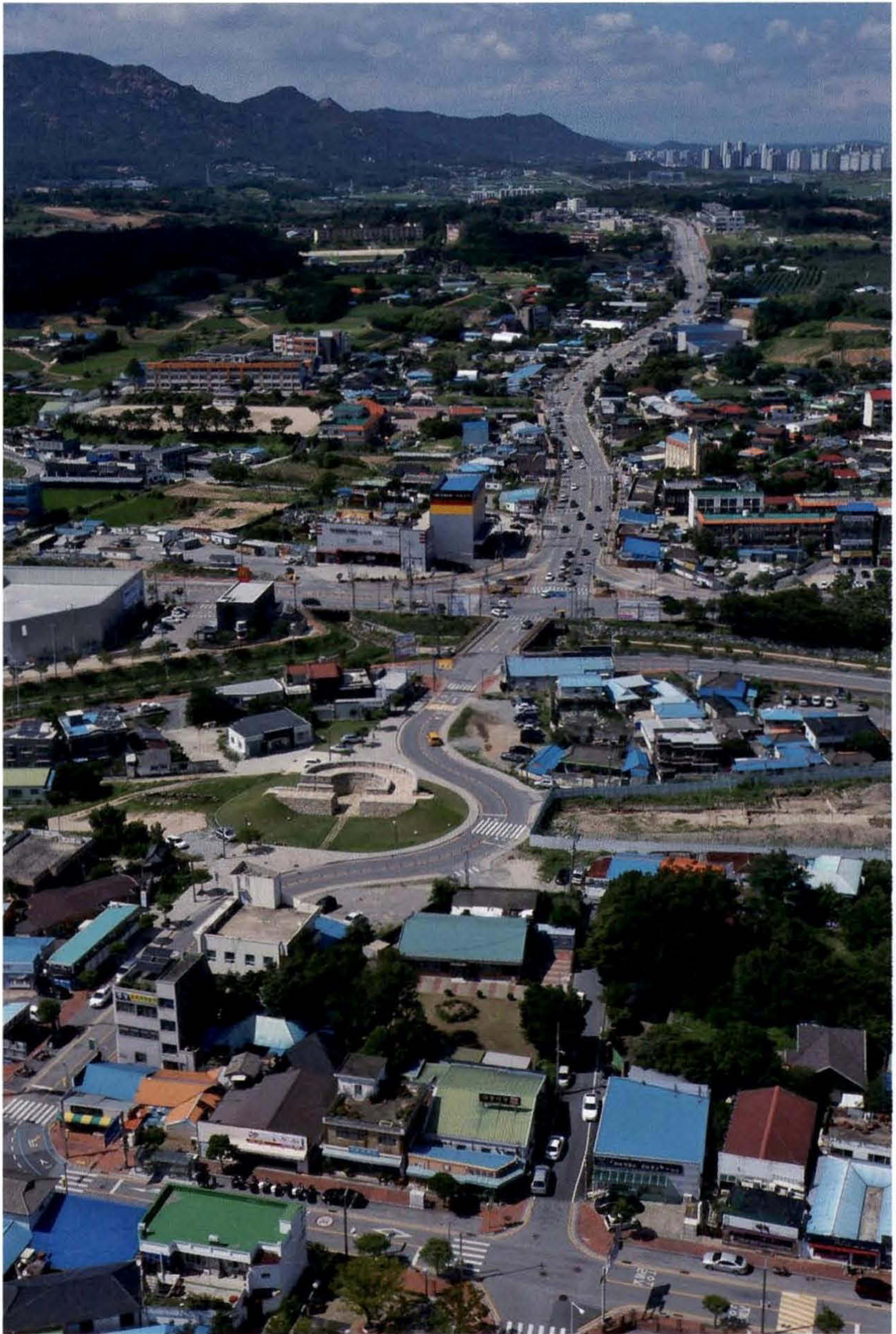
옛 흥고의 정취가 묻어나는 광경교를 지나면 대교공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은근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훌륭한 도심내 휴식처이자 종합 사색처다. 천주교도 있고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도 있고, 만해 한용운도 있고, 명곡 이산보선생 유사비도 있다.

다시 홍주성 역사관으로 돌아가는 길. 홍주읍성이 하루빨리 복원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면 주변의 여러 풍부한 역사문화 콘텐츠들과 함께 흥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주성역사관]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안에 있는 박물관으로, 홍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자 2011년 5월 6일 개관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2,900점 이상의 고문서, 전적, 회화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백제부흥군길 1코스

오서산 상담마을 ~ 대현1구 마을회관. 16.5km

백제부흥군길 1코스

	내포문화숲길안내소
	화장실 / 버스
	식당 / 숙소
	주차장 / 의료
	시점 / 종점
	노선 교차점
	스탬프



백제부흥군길 1코스 INFO

- 총 거 리 : 16.5KM(오서산상담마을 ~ 대현1구마을회관)
 - 스탬프 위 치 : 신질바위(복신굴)
 - 난 이 도 : 상
- 대부분 산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전 준비 및 안전에 주의하고, 우천 시 오서산 임도 내리막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등산 스틱이나 등산화를 준비해주세요.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백제부흥군길 1코스는

오서산상담마을부터 대현1구마을회관까지의 코스입니다.

오서산 상담마을은 서해안 최고봉인 오서산 산행의 시작점이자
백제 멸망이후 백제유민들이 3년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항전하였던
백제부흥전쟁 역사가 전해져오는 백제부흥군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상담마을에서 임도길을 따라 이어진 오르막 끝에는
췌질바위와 복신장군의 전설이 전해지는 복신굴이 있습니다.

오서산 임도길을 따라서 계속 길이 이어지며 기러기재를 기점으로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오서산 구간은 장곡산성(주류성) 초입인 대현1구 마을회관에서 끝이
납니다.



백제부흥군길 1코스

오서산 상담마을 ~ 대현1구 마을회관, 16.5km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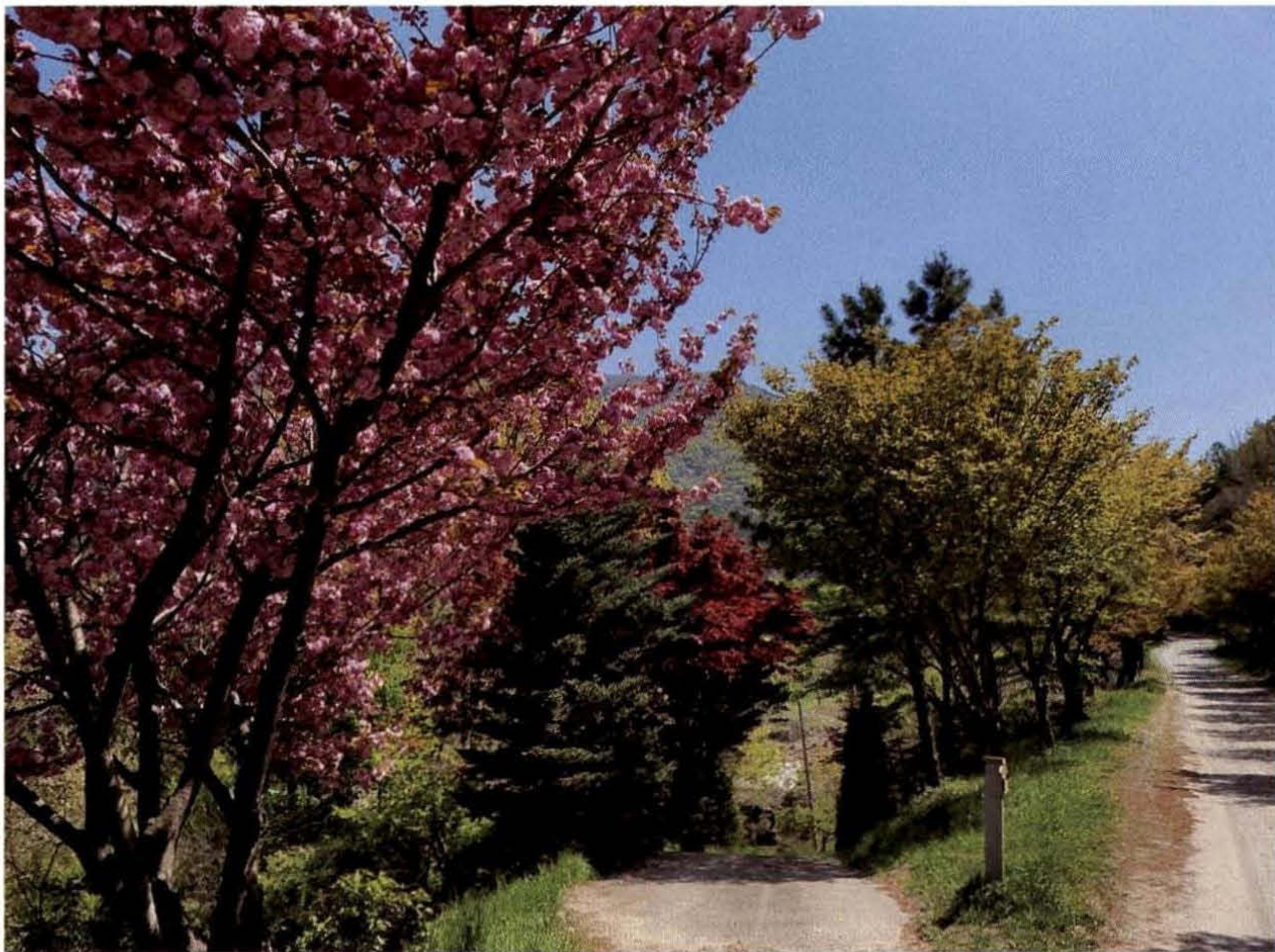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오서산

백제 부흥군길은 오서산 상담마을에서 시작한다. 이 길은 내포문화숲길 5개의 테마 중 가장 긴 코스(117km)이며 오서산 쇠질바위와 장곡산성, 학성산성, 예산의 최익현선생묘, 임존성, 의좋은 형제 공원, 무한산성, 추사고택, 당진의 면천읍성, 아미산 등을 지난다.

광천읍 담산리 상담마을은 오서산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광천읍 내 하천길을 품고 이어진 쾌적한 벚꽃길 그늘이나 편리한 교통, 광활한 주차장이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의 등산객을 수시로 유혹한다. 상담마을 주차장 옆으로는 오서산 산촌마을센터 식당이 있는데 이 마을의 자랑이자 명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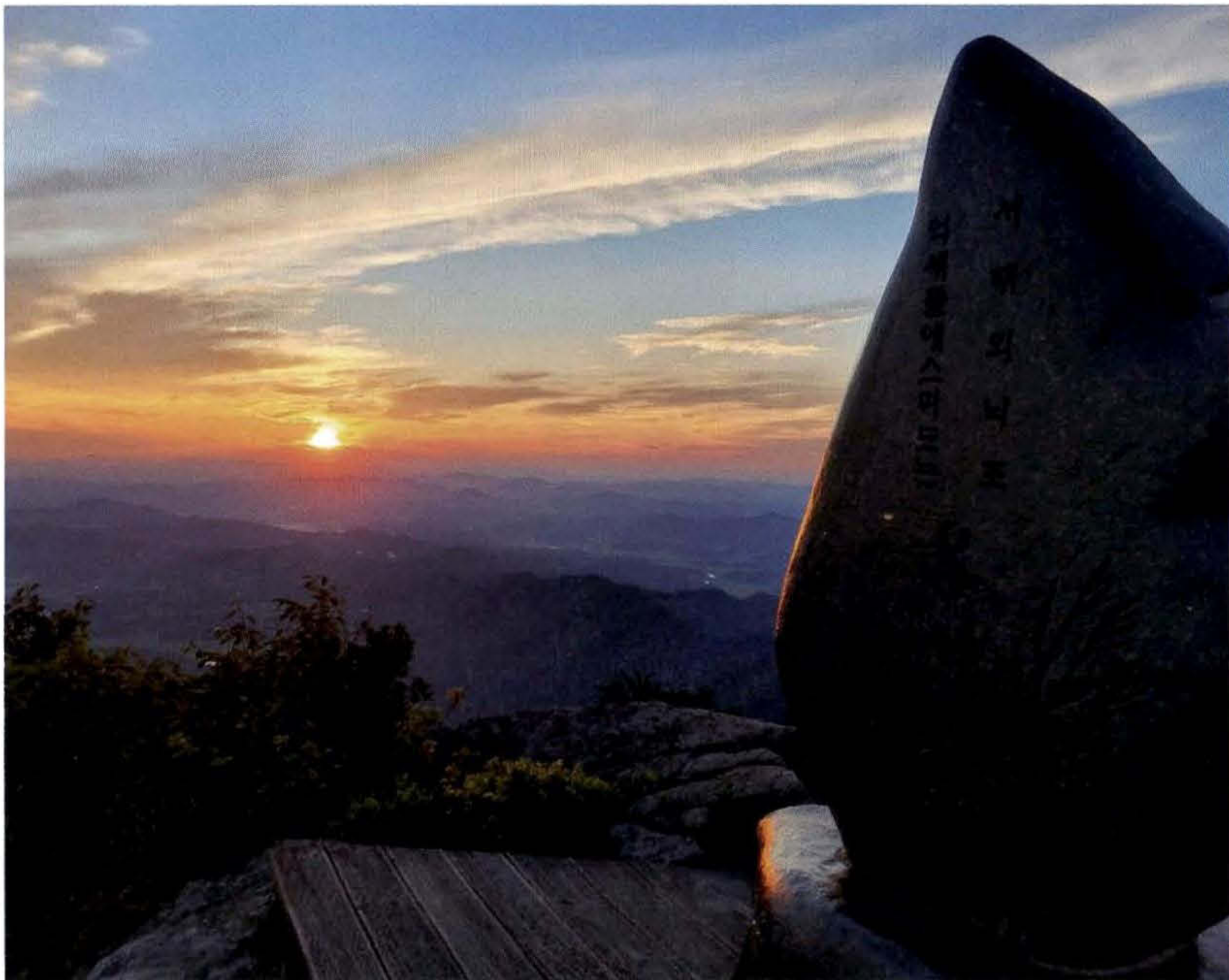
평균나이 74세의 마을부녀회 회원 22명이 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이 식당은, 오랜 전통의 맛은 물론이거니와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기에 지역주민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오서산은 희한하게도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달리 보인다. 보령쪽에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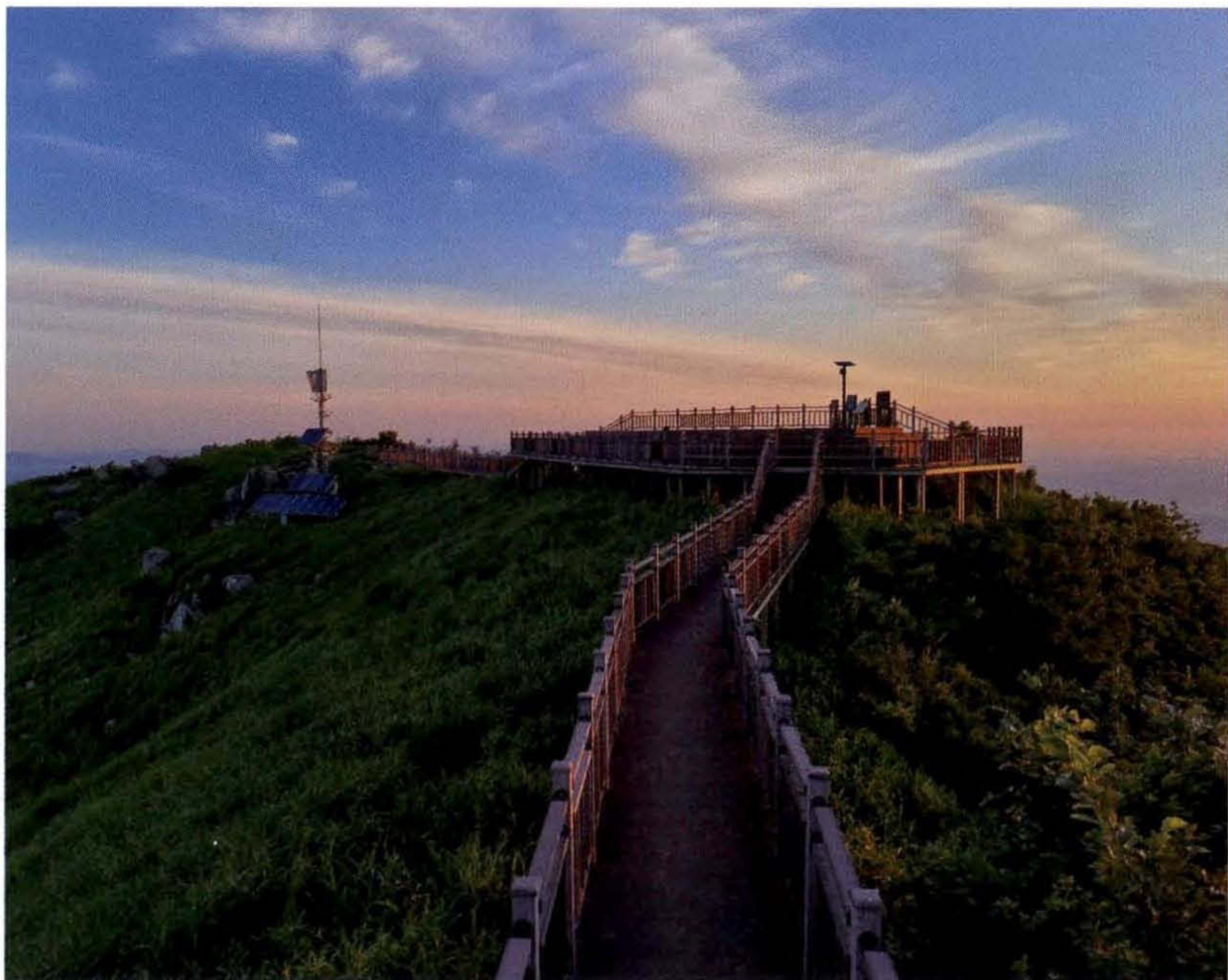
면 오서산은 영락없이 평평한 모습이다. 이를 풍수용어로 토산체(土山體)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는 주로 부농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나온다고 한다. 반면 광천쪽에서 보면 삼각형을 이루는 소위 금산체(金山體)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곳에서는 큰 부자들이 난다고 하는데 화려했던 광천의 영광을 생각하면 크게 틀린 말도 아니다.

내포문화숲길은 등산로가 아닌 오서산 임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정암사 입구까지는 자갈이 깔린 완만한 비포장도로이지만 양옆으로 울창한 나무가 있어 시원한 그늘이 종일 펼쳐진다. 안심사를 지나 편안한 길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아차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정암사 입구 사거리 갈림길이 나온다. 정암사는 오서산 정상으로 가는 주 등산로에 있는 사찰로 백제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한다.



오서산(烏棲山)은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에 오서악(烏棲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는 명산대천을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누어 국가차원의 천제를 올렸다고 한다. 정암사 중수기에 ‘국내에는 명산이 있으니 동에는 풍악 금강산이요, 서에는 구월산이요, 북에는 묘향산인데, 언제나 서로 보기가 싫은 마음이 없었으니, 이런 곳은 유독 오서산뿐이었다.’라는 재미있는 대목도 나온다.

정암사에서부터 정상까지는 16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오서산의 정상에 오르면 누구라도, 사방으로 탁 트인 풍광에 감탄사를 연발하기 마련이다. 멀리 서해바다, 당진, 공주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장쾌함에서 얻는 호연지기가 저절로 느껴진다.



천주교 사건으로 5개월간 금정(청양 일원)찰방으로 좌천되었던 다산 정약용이 오서산에 올라 지은 시가 전하는데,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끝없이 넓은 하늘 맑디 맑은데, 만리 가을 허공에 바람이 인다.’ 역사가 한창인 가을날, 오서산에 오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다. ‘열하일기’를 지은 박지원이 이 풍경을 보았다면, 목 놓아 한번 울어볼 만한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포문화숲길은 오서산 정상을 통과하지 않고 정암사 사거리에서 임도를 따라 직진한다. 군데군데 쓸만한 평상이 있긴 하지만 쉼질 바위까지는 지겹게도 한참을 올라야 한다. 오서산의 심플한 매력 중 하나는 즐기치게 오르고 즐기치게 내려가는 것이지만, 한여름에 이런 스타일은 아



무리 산길이라지만 그다지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해발 550m 지점의 쇠질바위에 다다르면 너른 평상이 하나 있어 일단은 쉬어야 한다. 이 구간 임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기도 하거니와 밑에 굴까지 가보려면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대략 사람 키의 50배 정도에 이른다는 ‘쇠질 바위’는 멀리서도 눈에 띄 정도로 웅장한 바위다.

이 바위 밑에는 조그만 굴이 있는데,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복



신(福信, ?~663)장군'이 기거했던 '복신굴'이라고 한다. 복신은 백제 무왕의 조카인 동시에 의자왕의 사촌 동생으로 백제가 망한 후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내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여풍(扶餘豐, 의자왕의 아들)에게 죽은 인물이다.

굴이 그리 넓지 않은 관계로 복신장군이 기거하기에는 많이 불편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백제 부흥운동에 오서산 자락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덮는다' 하였는데, 오서산이야말로 호서의 중심에 있으면서 험준한 지형과 넓은 지맥으로 백제부흥운동을 응원하며 백제 유민들을 말없이 위로했던 커다란 민중의 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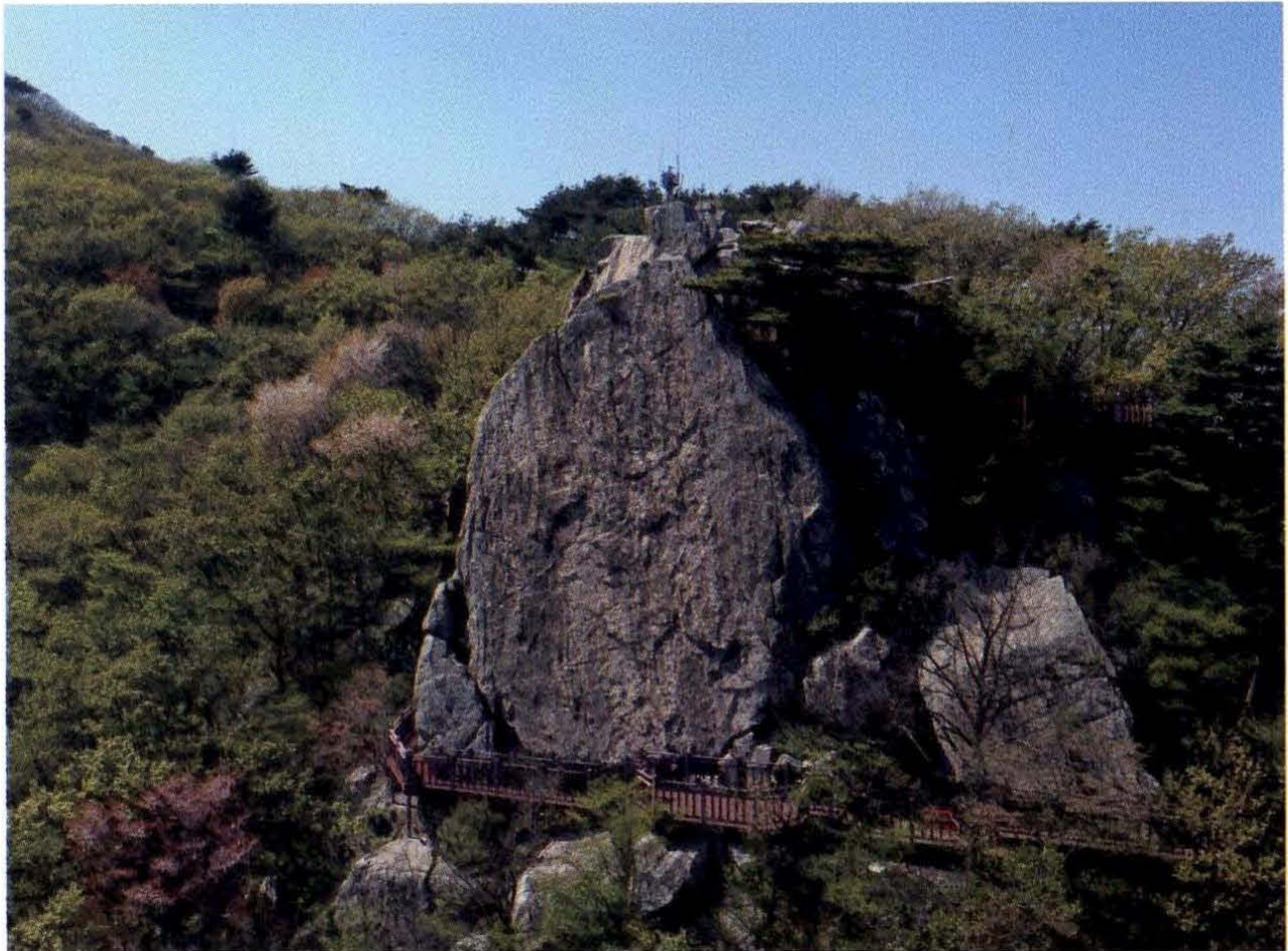
신질바위를 내려오면 곧바로 오서산의 또 다른 고찰 ‘내원사’를 만난다. 이곳은 산 정상에 오르는 최단 코스가 있고, 사철 흐르는 맑은 계곡과 귀한 약초가 많다고 알려진 곳이다. 임도는 한동안 더 이어지면서 편안한 산책길로 변하고, 장곡면의 여러 마을을 지난다. 신평리 마을과 연결되는 기러기재는 예전 광천의 상인들이 청양장을 보러 넘나들던 야트막한 고개다.

이곳에서부터는 산길로 접어드는데,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조망이 관촬은 곳이 더러 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여러모로 불편하고 다



소 지루하다. 목적지인 장곡면 대현리까지는 꽤나 멀고 긴 산길이 이어진다. 숲길에는 밤나무가 지천이었고 길에 떨어진 밤송이도 많았으나 막상 열어보니 허탕이었다.

대현 마을에 들어서니 들깨를 비롯한 여러 밭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밥값을 하느라 열심히 짓어대는 강아지도 반갑게 느껴졌다. 모진 학대에도 끝까지 괴롭히며 따라온 날파리 특공대 십여 마리도 함께 수고한, 무더운 여름날의 산책길이었다.



[신질바위(복신굴)]

1866년 병인박해 이후 1882년 사이에 진행된 천주교 박해 때 충청도 각 고을에서 붙잡혀온 천주교 신자 1000여 명이 생매장 당한 곳이다. 신자들을 생매장 시켰던 진돔병과 해미천옆에 생매장당한 이름 없는 순교자의 묘, 유해 발굴지에 조성된 노천성당, 서문 밖 순교지에 있던 자리개돌 원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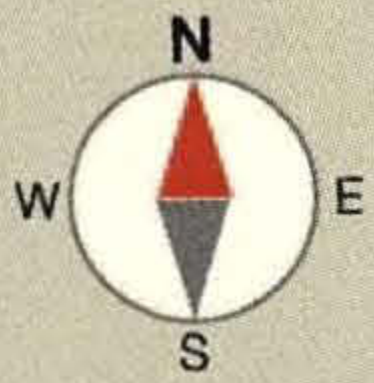


[상담마을]

서해안의 동대산이라 불리는 오서산의 첫 번째 마을로 봄에는 길게 펼쳐진 벚꽃길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오서산 정상의 억새 군락지가 유명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마을입니다. 상담마을 부녀회 분들이 운영하는 억새풀 식당에서 맛깔나는 마을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백제부흥군길 2코스

대현1구 마을회관 ~ 광시한우테마공원, 13.9km



백제부흥군길 2코스 INFO

- 총 거 리 : 13.9KM(대현1구마을회관 ~ 광시한우테마공원)
- 스탬프 위치 : 학성산성
- 난 이 도 : 상

학성산성 부근의 밤농장 사유지와 속은이 고개 부근의 농경지에 주민의 동의없이 출입하거나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지도이용 방법 : 램블러, 트랭글, 두루누비 앱에서 '내포문화숲길' 공식계정(naepotrails)을 팔로우 하시고 [공식] 마크가 붙은 코스 경로를 따라 걸으세요.
- 내포문화숲길 공식 홈페이지 코스 정보에서 GPS를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백제부흥군길 2코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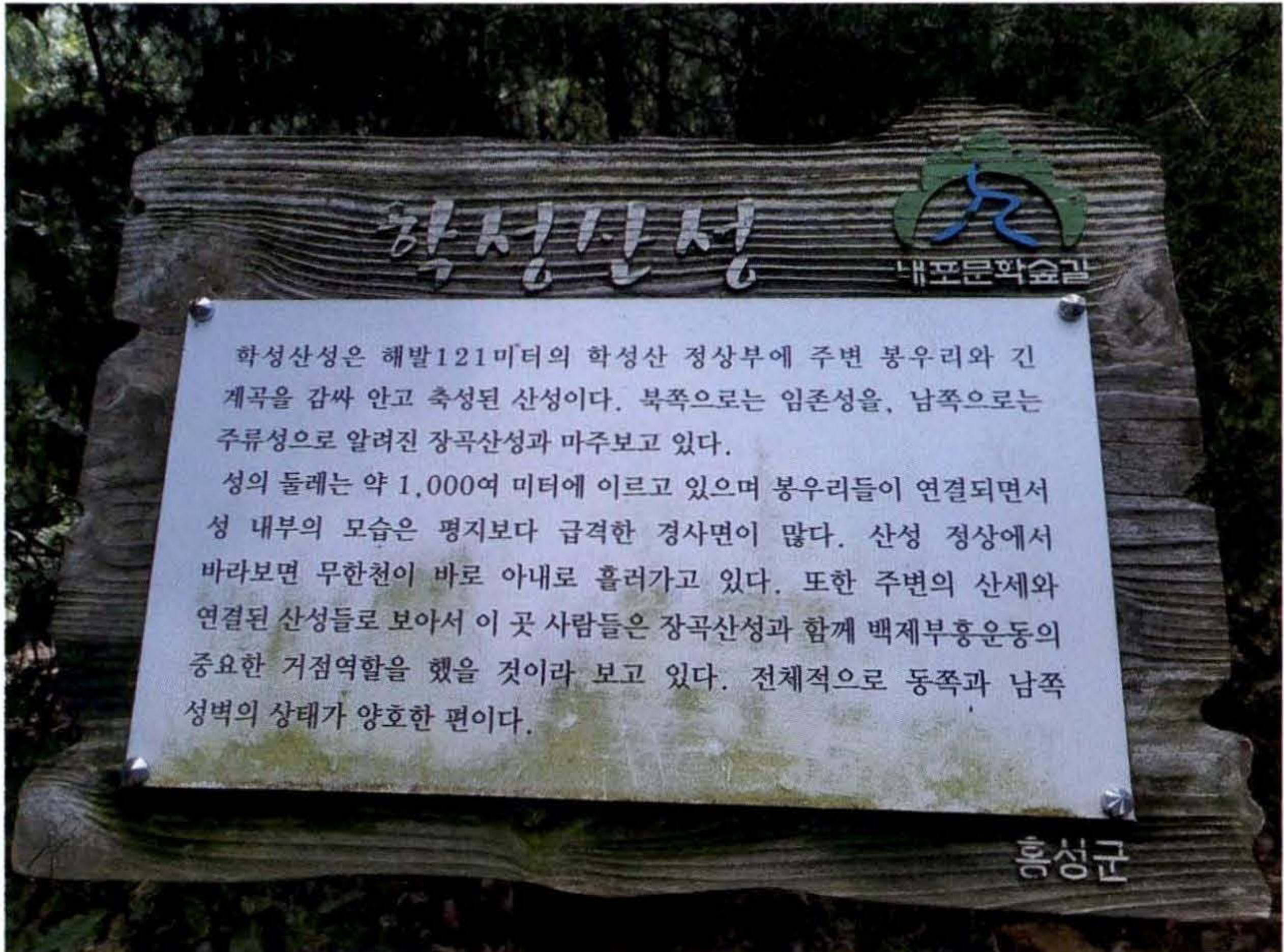
대현1구마을회관부터 광시한우테마공원까지의 코스입니다.

백제부흥전쟁의 역사적인 장소를 지나가는 코스로 대현 1구 마을회관에서 출발하여 오르막길을 오르면 장곡산성(주류성)을 만나게 됩니다.

주류성의 위치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적인 해석이 많이 있지만 남아있는 근거자료나 장곡산성내 건물지 등으로 이곳 장곡산성이 주류성이라고 추정 하고 있습니다.

장곡산성을 지나 다시 산성리 임도길을 걷다보면 학성산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학성산성 정상부에는 학산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무한천을 내려다보는 탁 트인 풍경과 편안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학성산성을 내려와 행정(천태)저수지를 끼고 홍성과 예산의 경계인 속은이 고개를 거쳐서 한우로 유명한 예산 광시한우테마공원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백제부흥군길 2코스

대현1구 마을회관 ~ 광시한우테마공원, 13.9km

답사기
글/사진
조남민 사무국장
(홍성문화원)

백제부흥운동의 중심 주류성을 찾아서

장곡면 대현1구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문에는 마을 주민들의 선후 3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뿌리를 잊지 않고 자손만대 부귀 공명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이 비석은, 조상의 음덕을 받들고 효성을 다하며 사랑과 인정으로 마을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뒤편으로 가파른 오르막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백제 부흥군길의 핵심인 주류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현재의 이름은 장곡산성이지만 과거 주류성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자리이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1.3km의 성곽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다.

산성 주변은 계곡이 좁아 군사활동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산성 안에 여러 곳의 출입문 터와 건물터 10여 개소, 백제시대 토기류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주변의 학성산성 태봉산성 소구니산성 등이 띠를 두르듯 이어져 있어 전략적 요충지이자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해발 255m의 장곡산성에 오르면 옛 성곽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내리막길로 들어서면 사방이 반듯한 옛 건물터가 나온다. 이 곳은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안전과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시설이 있었던 장소로 평가되는 곳이며, 홍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매년 백제 부흥군 위령제(백제 부흥운동 순의열사 위령제)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포문화숲길은 여기서 왼쪽으로 이어지며 곧이어 나타나는 오르막을 지나고 나서야 장곡산성을 벗어날 수 있다.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백제 유민들은 왜(倭)에 있던 풍 왕자를 모셔와 왕으로 세우고 주류성을 왕성으로 삼아 백제 탈환을 위한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4년간 지속된 이 저항은 백제 지도층의 내분과 백강(백촌강) 전투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중요 요충지인 임존성과 본거지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막을 내렸다. 백강전투(백강구)는 나당연합군과 왜(倭)까지 참여한 동아시아 국제 해전으로, 여기에서 패한 왜는 국호를 '일본'으로 고치게 되었고,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의 지형이 현재까지 고착화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담긴 전투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백강과 주류성의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학계의 큰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백강의 위치는 아산만 금강 동진강 등이 거론되고 있고, 주류성은 흥성을 비롯하여 서천 연기 부안 등에 존재했다는 학



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 홍성지역은 김정호가 밝힌 ‘주류성은 홍주에 있다’는 내용에 기반하여 장곡산성 일대를 주류성으로 보고 있다.

장곡산성을 내려오면 지방도 96호선을 접하게 되고, 고미당 임산물 판매장 옆길로 올라서면 야트막한 동산에 길쭉하게 잘 자란 소나무 숲과 가마터, 삼국시대의 귀족묘인 석실묘를 만나게 된다. 이 주변 일대는 사운고택과 어우러져 정겹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사운고택(조응식 가옥)은 '구름 같은 선비'라는 뜻의 사운(士雲)과 우화정(雨花亭, 꽃비가 내리는 정자)이라는 뜻을 가진 양주 조씨(楊州趙氏)의 종



가이며 중요민속문화재 제198호로 지정된 곳이다.

솯을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보이고 우측 대문으로는 안마당에 이르는 데, 사랑채 누마루 아랫부분에 ‘천하태평’이라는 글씨 조각이 특히 인상적이다. 안채 동문을 통하면 별당채와 마당이 나타나는 조선시대 가옥 특유의 조형미가 있다. 고택 뒤편으로는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있고 그 위에는 학성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비교적 완만하다. 121m의 정상에 있는 ‘학산정’에서는 마을 주변의 무한천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북쪽으로는 임존성, 남



쪽으로는 장곡산성이 시야에 들어온다. 학성산성의 둘레는 1km에 이르며 봉우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평지보다 급격한 경사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오른쪽으로는 태봉산성이 위치해 있지만 내포문화숲길은 왼편의 행정 1구 마을회관쪽으로 향한다.

행정리는 살구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행계리(杏溪里)와 지정리(智亭里)가 합해진 이름이다. 이 마을 앞으로는 천태산 줄기의 모습이 멋지게 반영되는 천태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를 반바퀴 돌아들면 숲속의 호젓한 사찰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미타사를 둘러볼 수 있다.



이곳에서 시원한 약수로 목을 축이고 행정 2구의 속은이 고개를 넘어서면 예산군 노전리에 이르는데, ‘속은(俗隱)이’란 속인을 자처하며 낙향한 선비가 머물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노전리 굴다리를 통과하여 맞은편 광시로 향하는 길은 전형적인 시골 논길이며, 기계화 경작로가 시원시원하게 잘 뚫려 있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다.

부근에 있는 한국문인인장박물관은 2001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도장 테마 박물관으로, 문인들이 자신의 책을 발행한 뒤 낙관으로 사용했던 인장 1천여 점이 보관 전시되어있는 이색적인 곳이다.



다소 심심한 시골길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인 광시 한우마을에 닿는다. 광시는 한우로 유명한 곳이며 현재는 30여개가 넘는 정육점, 식당이 성업중에 있다. 작은 시골 면이지만 주말이면 한우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내포문화숲길 코스 종착지에 식당 변화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을 마주할 때였다. 백제부흥운동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도 든든한 밥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광시한우테마공원]

맛좋은 한우 암소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광시면 한우고기는 부드러운 육질과 고기맛으로 소문이 나면서 많은 미식가가 방문하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광시한우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곡산성(주류성)]

홍성군 장곡면 해발 255.5m의 산에 쌓은 성으로 둘레는 약 1,352m이다. 주변의 지세가 험하고 계곡이 좁아 군사상 요충지로 적합한 지형이며 주위에 학성산성, 태봉산성, 소구니 산성이 띠를 이루듯 이뤄져 있어 지리적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제부흥운동 당시 풍왕이 거주했던 주류성으로 추정됩니다.

님의 숨결 굿이쳐 길이 되다

· 1판 1쇄 인쇄 : 2022년 11월 03

· 1판 1쇄 발행 : 2022년 11월 04

| 참여 연구진 |

홍 성 신 문 민웅기 전 무
(사)내포문화숲길 하영진 홍성센터장
청 운 대 학 교 김봉덕 교 수
홍 성 문 화 원 조남민 국 장

· 발 행 일 2022년 11월

· 발 행 홍성신문 출판사업부

· 발 행 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26, 전화 : 041-634-3001

· 편집인쇄 메트로C. 041-632-9155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발행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 지역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옛길과 마을길, 숲길과 하천길을 연결한
충청남도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며 총거리는 약 320km입니다.

